



#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 1주차

이철우 교수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센터  
K-ACADEMIC DIFFUSION RESEARCH CENTER

### 01

## 과목소개

본 강좌를 하나의 질문으로 나타낸다면 "코리언은 누구입니까?"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코리언, 즉 한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코리언 동포를 총칭합니다.

"시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의 존재양식과 누리는 지위를 가리키고, "네이션"은 국적과 관계없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코리언 동포를 가리킵니다.

주로 시민권과 네이션의 제도적 측면을 다룹니다. 원용하는 많은 정보는 법적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제에서 바라보는 시민권과 네이션, 그리고 세계 각국이 시민권과 네이션을 어떻게 규정하고 취급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살피겠습니다.

### 02

## 강의방식

강의

퀴즈

03

주차별 구성

1주차	시민권이란, 네이션이란
2주차	한인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가
3주차	국민과 동포: 국가와 네이션의 경계
4주차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5주차	국민과 외국인: 기본권과 법적 지위(I)
6주차	국민과 외국인: 기본권과 법적 지위(II)
7주차	여러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
8주차	국적을 잃는다는 것은,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9주차	초국경 국민과 초국가적 네이션
10주차	시민권과 네이션의 현재와 미래

04

1주차 키워드

- 시민권
- 네이션
- 한국의 시민권
- 시민, 국민, 공민, 인민

# 강의

## 시민권이란, 네이션이란

### 1-1

### 프롤로그: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안녕하세요.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강의를 맡게 된 이철우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강좌 전체의 취지가 뭐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의 제목은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입니다. 강좌의 제목을 구상할 때 제가 먼저 영어 제목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 제목은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Korea로 생각을 했습니다. Citizenship은 시민권으로 표현을 했고, Nationhood는 그냥 네이션으로 표현을 했는데, 왜 시민권은 한국어를 사용했고 네이션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민족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민족이나 국민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 단어 그대로 네이션이라 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한인, Korean. Korean은 누구이며,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Republic Of Korea의 국민은 누구인가? 한인 또는 한민족 아니면 코리안 민족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원리는 뭐고 또 대한민국 국민,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는 것을 취지로 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강좌에서는 다음의 주제들을 다룹니다.

먼저 제목을 이루는 시민권과 네이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한국인이란 누구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인, 그럼 어떤 때는 대한민국, 한국인 그러면은 어떤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가의 국민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살아가는 코리안 전체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 한인 또는 코리안 중에서 누구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누구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하고 물을 수가 있겠죠. 이런 물음에 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즉 외국 국적을 가지는 동포들은 한국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이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까요?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인이었다가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사람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고 되는 거고 또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민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까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헌법에 나와 있죠. 헌법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국민에게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헌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건 외국인건 또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국민과 외국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뭔가 하면 바로 참정권이 아닐까 합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국민은 투표를 하죠. 외국인은 투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아주 그 나라에서 늘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도 동등하게 참정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앞에서 국민과 외국인을 가르는 게 참정권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늘상 살아가는 그런 외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아주 잘하고 또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있고 한국 친구도 많은 그런 외국인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외국인에게는 어느 정도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는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토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에 국적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중국적이라고 하죠. 요즘은 법률에서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복수국적이라고 합니다. 국적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국적을 가지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미래 한국의 구성원들은 어떤 권리를 누리게 될까요?  
단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지위와 권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들어 주는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다를까요?  
이렇게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으로 이 강좌를 끝내게 됩니다.

그럼, 첫 주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시민권이란, 네이션이란

### 1-2

### 시민권(citizenship)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시민권과 네이션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은 영어 citizenship의 번역어입니다. 영어의 citizen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노르만어에 citespace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합니다. 도시를 뜻하는 프랑스어 단어 cite에 독일어 계통의 말인 sein이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라틴계의 말하고 게르만계 말이 이렇게 혼합된 것같이 보입니다. 프랑스어로 citizen을 citoyen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citeien이라는 고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의 citizen에 해당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용어를 보면 정치공동체,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그러한 공동체, 대표적으로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국가 또는 조직화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정치공동체 또는 국가 즉, polis 또는 그리스어로는 politeia라고 불리는 그러한 조직체의 완전한 구성원을 뜻하는 politēs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로마에서는 국가를,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polis 또는 politeia에 해당하는 로마의 용어가 civitas였는데 그 civitas의 구성원을 civis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civis Rōmānus 그러면은 그게 바로 로마의 citizen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citizenship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처음 들으셨어요?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한 10년쯤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입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입국 카드입니다. 그 후에 이 카드의 형식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itizenship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다 citizenship 또는 nationality를 기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뭘 쓰라는 걸까요? 바로 국적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Korean이라고 쓴 적도 있고 또 Republic Of Korea라고 쓴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citizenship은 국적을 뜻하는 nationality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본 그 카드에서도 citizenship하고 nationality가 병렬적으로 같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국적을 nationalité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Staatsangehörigkeit라고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독일어 Staatsangehörigkeit는 국가 소속이라는 뜻이니까 정확히 한국어 국적에 해당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Staatsbürgerschaft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bürger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즉 시민을 뜻하는 말이니까 국적을 뜻하는 Staatsbürgerschaft는 국가시민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itizenship은 이렇게 국적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citizenship의 인적 경계, 바운더리가 국적과 꼭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citizenship하고 nationality, 그러니까 시민권하고 국적을 구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출생과 더불어서 미합중국 국적자가 되기는 하지만 citizen은 아닌 사람, 미국 법률상의 용어로는 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이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범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해외 점령지, 그러니까 미국령 사모아, 태평양의 섬 사모아, 그리고 스웨인스 아일랜드라는 그런 태평양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해외 점령지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합중국 50개 주 중에 어느 하나에서 출생함으로써 citizen이 되는 사람과 달리 미합중국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citizen은 아니고 그냥 national일 뿐인 것이죠. 미국의 그런 시민은 아니고 국적만 가지고 있는 국적자라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라고 있지요.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는 프랑스어로 citizen, citoye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itoyen은 여러 가족으로 구성되는 자유로운 사회의 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권리를 누리는 자이다. 여성, 아동, 하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의 가족원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받을 뿐이고 진정한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헌법도 재미있는데요. 멕시코 헌법 제30조를 보면은 멕시코 국적은, nationality는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해서 취득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34조를 보면은 멕시코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성년에 이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화국의 citizen이 된다, 시민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국적과 시민권을 이렇게 30조와 34조로 나눠서, 구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citizenship은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그 국가에서 가장 완전한 권리, 특히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전체 꾸러미, 꾸러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성원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가지는 citizenship, 시민권은 국가 소속의 그 국내적 측면을 가리키고 대외적, 즉 국제적 측면을 가리키는 국적과는 구별이 되는데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되는데 대내적 측면하고 대외적 측면의 범위가 일치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 citizenship과 nationality는 결국 같은 범위가 되는 것이죠. 시민권과 국적이 범위가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불일치하는 경우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citizen이 아닌 그냥 국적자이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일치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그 citizenship을 권리의 꾸러미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권리의 내용들은, 그리고 그 권리의 지평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T.H. Marshall이라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가 1949년에 케임브리지대에서 citizenship and social class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강연문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전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T.H. Marshall은 시민권, 그러니까 citizenship의 내용으로서 civil rights, 그러니까 시민적 권리라고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로 하자면 자유권, 자유권에서 시민권이 점점 정치적 권리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내용이 확대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유권, 정치적 권리, 참정권, 그리고 사회적 권리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경제적 권리도 있지요. 그리고 문화적 권리도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citizenship, 시민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citizenship, 시민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집단에의 참여,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그럴 때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원으로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그 정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 주민이 우리는 차별을 받는다 할 때 그 사람들은 2등 시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2등 시민이냐?

이렇게 좀 자조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여한 사람이 같은 국민이지마는 처음부터 국민이었던 사람하고는 좀 달리 취급을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국민인 사람에 비해서 좀 차별을 받는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2등 시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떤 참여의 정도나 인정받는 정도를 말한다면은 그럼 외국인이나 국민이나 그런 구별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국민 못지않은 대접을 받고 또 국민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죠. 투자를 많이 한 외국인이라든가. 그럼 그런 외국인도 citizenship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도 citizenship을 갖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권리의 꾸러미, 그리고 참여의 정도를 말하는 뜻으로 우리가 citizen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외국인도 citizenship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학자가 쓴 글 제목을 보니까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Korea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용어 사용은 즉, 외국인도 citizenship을 가질 수 있는 그런 citizenship이 반드시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닌, 그런 뜻이 아닌 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뭔가 이상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과 외국인은 권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무래도 citizenship은 국민이 누리는 지위로 보는 게 현실적인 그런 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또 citizenship이 어떤 말로도 쓰이냐 하면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 질서를 잘 지키고 남들에게 양보도 하고 그런 훌륭한 시민의 자세를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citizenship을 가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citizenship이라는 용어는 시민권보다는 시민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citizenship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들이 시민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용어 사용을, 용어를 쪽 정리를 해 볼까요? 우선 저는 citizenship은 그냥 시민권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꾸러미, 이것으로써 citizenship을 정의하겠습니다. 정치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인 거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꾸러미가 결국은 시민권이다 그런 전제 위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권이란, 네이션이란

### 1-3 시민, 국민, 공민, 인민

조금 아까 한국에서는 citizen을 시민으로 번역하고 있고 citizenship을 시민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citizenship을 시민권으로 번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시민의 자세, 건전한 시민의 자세를 뜻하는 그런 용어로 시민권 대신에 시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citizen을 시민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citizenship을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게 과연 좋은 번역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지인이 재미있는 일화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외국에 갔는데 비행기를 내리려고 할 때 입국 카드에 citizenship을 쓰라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비슷한 카드겠죠? 거기에 citizenship을 쓰라고 했는데 그때 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citizenship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거기에 서울 이렇게 기재를 했다고 그런 자기의 경험을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city가 도시를 뜻하는 말이니깐. 그리고 citizen이라는 말의 유래에서도 우리가 아까 봤듯이 도시를 뜻하는 cite가 있으니깐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citizen을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citizenship을 국민권으로 표현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북한의 국민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들의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법률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서도 공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지금은 공민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 우리 해방 후에, 그리고 1950년대만 하더라도 공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자세, 아까 말하는 좋은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뜻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공민 교과서라는 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과서에서도 공민이라는 교과목이 있을 정도로 공민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citizen을 뜻하는 용어으로써 공민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에는 많이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공민이라는 용어를 그다지 자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법령에는 공민권이라는 용어가 아주 드물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공민이라는 용어를 그다지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대신에 지금은 우리가 공민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대신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국민은 국가의 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늘 국민과 함께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의 정당 중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정당의 영어 이름이 뭐냐 하면은 The People Power Party로 영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국민을 The People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The People 이 말은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나오는 용어죠. 미합중국 헌법에서도 The People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The People이라고 하면은 통상 그것은 인민이라는 번역어가 더 어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민이라는 이 용어는 말이죠, 뭔가 우리에게 그다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인민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1948년 근대 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 대신에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진오 선생이 작성한 대한민국 헌법 제1초고, 그리고 유진오 선생이 작성한 그런 안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사법부에 제출된 헌법 초안에서는 조선 인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민이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서 배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948년에 최종적으로 채택된 우리 헌법은 인민 대신 국민이라는 말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1948년 헌법 제2조, 지금 헌법에는 제1조 제2항이 되겠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좌에서는 citizenship은 그냥 시민권이라는 용어로 번역해서 쓰고 citizen은 사실은 공민이라는 용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생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이라는 용어는 학자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말의 유래는 도시민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도시적인 그런 맥락보다는 전체 나라의 성원이다, 국가의 성원이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국민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citizenship은 시민권으로, citizen은 국민으로 표현을 해서 이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권이란, 네이션이란

### 1-4 Nation이란?

이번에는 이 강좌 제목에 나오는 두 번째 개념 nation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tion은 라틴어 단어 natio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수가 탄생한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nativ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natio, nativity 이런 말은 태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natio는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 어느 집단으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그 집단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natio는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원래 nation의 유래인 원어 natio는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정치공동체를 뜻하는 용어 몇 개를 말씀드렸죠. 그리스와 로마에서. 로마에서 정치공동체를 뜻하는 용어로서 civitas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natio는 그러니까 정치공동체를 뜻하는 civitas와 구별이 되는 동족적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편 라틴어 natio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용어로는 ethnos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ethnos가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정치공동체를 뜻하는 용어로 politeia, polis를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politeia가 있었죠. 라틴어의 civitas와 뜻이 통하는 그런 용어이죠. 그 정치공동체를 뜻하는 politeia와 구별되는 그런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ethnos가 있었습니다. 라틴어 natio와 그리스어 ethnos가 서로 뜻이 통하는 그러한 용어로 당시 고대 국가에서 사용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nation에 해당하는 과거의 용어가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의미로 통용이 됐는데 중세 영어로 nation을 뜻하는 말로서 nacioun이란 용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nacioun이라는 그 용어에는 혈통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근대로 가까이 오면서 nation은 점점 혈통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정치 사회를 이루는 집단, 정치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전체 집단 그런 뜻으로 뜻이 점점 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기에 이르게 되면은 nation, 프랑스어로는 nacioun이 국민 집단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citoyen, 프랑스 국민의 권리가 선언이 되었죠. 그것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해서 그때 citoyen를 시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좌에서는 그것을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nacioun이 결국은 시민 집단, 즉 국민 집단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 프랑스 혁명기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한편 그 nation은 국가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United Nations, UN. UN이 뭐예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러한 조직체이지 않습니까? UN의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바로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United Nations 그러면 국가 연합 이런 뜻이 되겠는데 엄밀하게는 United States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미 미합중국이 그 용어를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UN를 창설했을 때 United Nations라는 말로 그 조직체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또 international이라는 말이 있죠. international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수식하는 그러한 형용사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때는 national이라는 말이 국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던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international이라는 말은 interstate하고 같은 말인 것이죠.

이처럼 nation이라는 말이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그러한 뜻에서 시작을 해서 근래 와서는 국가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조응해서 국적을 뜻하는 용어인 nationality, 프랑스어로는 nationalité. 이 말이 nation에서 유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nation이라는 그 용어와 Nationality라는 용어가 가지는 그러한 어떤 유래를 따져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ationality가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 것은 바로 nation이 국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게 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nation이 이렇게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여전히 nation을 그런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혈통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그러한 집단을 뜻하는 말로 여전히 nation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어로는 민족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조응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같이 쓰는데 중국어로는 그것을 民族, 제가 중국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minzoku라고 하죠. 그렇게 발음이 되는 바로 그 같은 한자어, 한국어로 민족이라고 칭해지는 바로 그 용어에 담긴 뜻이 nation,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nation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용어하고 서로 통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한국어로 민족, 또 중국어, 일본어로 같은 한자어를 쓰는 바로 그 개념과 뜻이 매우 깊이 통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ethnic group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집단이 있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종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민족, 또 종족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많이 함의가 통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두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의 nation과도 매우 잘 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인종이나 race, 우리가 race를 인종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것과는 물론 다르죠. 인종은 좀 더 생물학적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겠고요. ethnic, 또 ethnic group 그것의 번역어에 해당하는 종족이라고 할 때는 인종과는 조금 다르게 혈통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그러한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과도 서로 함께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ation이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집단으로서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민 집단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근래 와서는 특히 국가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듯이 nation이라는 말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 예를 보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Nationalism, 그러니까 nation에 바탕을 둔 Nationalism이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하는가를 보면은 민족주의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때로는 국민주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주의라는 그런 설명이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nation-state라는 개념이 있죠. 이것을 민족 국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국민 국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nation이 혈통과 문화를 공통으로 하는 집단을 뜻하기도 하고 또 정치공동체, 국가를 이루는 집단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이 두 측면을 각각 분명히 하기 위해서 nation의 앞에 단어를 붙여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nation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taatsnation, 즉 국가적 nation, Kulturnation, 문화적 nation, Volksnation, 이것은 좀 더 문화와 혈통을 다 포함하는 그런 민족적 nation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복잡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 nation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러한 용어 사용이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Nationality를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Nationality가 사용된다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것은 nation이 국가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Nationality는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지위, 즉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nation이 그렇듯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Nationality에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의미가 법률상의 용어로도 2개가 다르게 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난민협약인데요. 난민협약 제1조를 보면은 난민을 정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난민은 어떤 사람이죠? 난민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ion을 이유로 해 가지고 피신한 사람들이 난민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인가요? 박해의 5가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인종에 의한 박해, race, 인종에 의한 박해. religion, 종교에 따른 박해, 그리고 Nationality에 따른 박해가 있습니다. 그 외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정치적 견해, 정치범이 되는 거죠.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이렇게 5가지 박해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Nationality를 이유로 한 박해, 이때의 그 Nationality가 뭐냐?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여기에는 국적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국적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은 로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집시라고 불려지는 집단이 있죠. 동유럽 지역에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 어떤 나라에도 국적이 분명치가 않단 말이죠.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또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국적에 따른 탄압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특정 민족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보는 것이 더 그 실상을 잘 반영을 하겠죠.

이처럼 Nationality는 국적이라는 뜻을 담는 것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개념인데 난민협약 제1조에서 난민을 정의하는 것을 보면은 Nationality가 물론 국적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특정 민족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서 난민협약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과거 발칸반도에서 민족 분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수를 점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막 박해하는 거죠. 유고슬라비아가 분열을 해서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거기에 과거의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에 가서 살기도 하고 크로아티아인들이 세르비아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내부에 세르비아인들이 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족 간의 분규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 다수를 점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박해함으로써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한 뜻으로, 그러한 민족에의 소속을 뜻하는 용어로서 Nationality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문에서 두 번째 나오는 Nationality는 그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오는 Nationality는 국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국 밖으로, 자기의 국적국 밖으로 피신을 해야 난민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Nationality도 국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주국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오는 Nationality는 이것은 국적을 뜻하는 것이고 첫 번째 나오는 Nationality는 국적도 뜻하지만 그것보다는 특정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지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Nationality라는 한 단어가 같은 조문에 3번 이상 나오면서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참 nation이라는 용어가 것처럼 그렇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Nationality도 결국은 nation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 있는 지위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에서는 nation의 함의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nation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그것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또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지위, 그 국가의 구성원을 이루는 그 집단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될 때 그것을 국민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표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nation이 그만큼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nation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권이란, 네이션이란

#### 1-5 Nation을 바라보는 세가지 관점

이렇게 nation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nation이라는 용어가 그만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면인데 그중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nation을 바라보는 관점, 학자들의 관점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nation을 바라보는 관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로 이것을 구별해 봤는데 첫째는 원초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rimordialis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rimordialism이라는 관점인데,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느껴지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인, Korean.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Korean는 단군의 자손이다. 4,000년 전의 신화적인 인물인 단군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게 원초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ation이라는 것, 민족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이것은 그냥 당연, 자명한 거죠. 그냥 태어나면서 그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집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단은 어떠한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정말로 믿는 그러한 입장이 원초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도 원초주의적인 입장에서 nation을 접근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시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라는 책에서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그런 고대 민족 집단을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 즉 우리와 저들의 투쟁이다.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믿음을 거기에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달리 어떤 특별한 그러한 사고라기보다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관점은 근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odernist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nation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nation은 그것을 태어나게 만든 그 선행하는 집단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nation의 집단의 바탕, 배경을 막 따지고 올라가 본다면 한들 과거에 과거 그 고대까지 올라가서 어떤 특정 집단하고 지금의 nation 사이에는 특별한 그러한 연속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이 입장에서는, 이 입장을 근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nation은 근대의 산물이고 전근대에 존재하던 그 종족 집단, ethnic 집단,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전근대에 존재하던 그와 같은 집단과는 연속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근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rnest Renan이라는 19세기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nation이란 무엇인가?라는 짚막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은 한 nation의 존재는, 불어로 쓴 거니까 citoyen, 한 citoyen의 존재는 나날이 행하는 국민 투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은 nation이 옛날부터 일관되게 내려오는 단일 집단이거나 nation에 소속된 것이 그렇게 자명한 게 아니라 nation에 소속되는 거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성 이것을 강조를 하는 그런 점에서 Renan은 근대주의적인 nation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 19세기 학자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Ernest Gellner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nation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바로 그 말을 한 사람입니다. Ernest Gellner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에스토니아의 예를 드는데요. 우리 에스토니아 그러면 발트해 연안에 있는 국가로서 소련방으로부터 탈퇴를 해서 독립국이 된 나라죠. 과거에 소련방의 공화국으로 있었다가 90년대 들어와 가지고 독립을 했죠. 그 에스토니아의 언어가 우리는 유럽의 다른 인근 국가의 언어와는 매우 구별되는 피노-우그리아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다른 민족하고 구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이 Ernest Gellner는 말이죠, 그 에스토니아 nation이 옛날부터 그렇게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자의식이 강한 그런 집단이 아니고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어떤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막 박물관을 만들고 유물들을 수집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nation을 구성해냈다는 것이죠, 새로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아무튼 Ernest Gellners는 그러한 주장을 펼쳤고 다음에 그 주장에 선행해서 Gellner가 출간한 유명한 책으로 Nations and Nationali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또 하나 유명한 사람으로서 Eric Hobsbawm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Eric Hobsbawm의 이 책의 제목이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Gellner의 책하고 좀 혼동이 되기가 쉬운데 Gellner의 책은 Nations and Nationalism이고 Hobsbawm의 책은 그 뒤에 since 1780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서 혼동이 되기가 쉬운데 Gellner와 Hobsbawm은 서로 통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Hobsbawm은 전근대의 민족을 Protonation, 전근대에도 nation과 유사한 그러한 집단이 있었다. 그것을 Protonation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학계에서 이것을 원민족이라고 번역한 예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otonation하고 전근대의 Protonation이라는 집단하고 오늘날 근대의 nation과는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근대의 nation이라는 것은 근대의 여러 사회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사회 변화에 입각해 가지고 새로이 만들어진 그러한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근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대주의적 관점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학자로서 특히 근래에 많이 언급되는 사람으로서 Benedict Anderson이 있습니다. Benedict Anderson의 저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라는 책이죠. nation은 상상의 공동체이다 그런 말 요즘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ation이라는 것이 자명한 것,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바로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주어지는 그러한 집단, 그리고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는, 연속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 어느 단계, 어느 역사 단계에서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집단이다 그것을 Anderson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Anderson은 nation의 형성에 있어서 인쇄술의 발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훨씬 넓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그 전에 과거에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국지적인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좁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넓은, 지금의 오늘날의 근대 국가를 이룬 공동체들이 그래서 생겨났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근대주의적 관점을 쭉 살펴봤는데 근대주의적 관점을 표방하는 그러한 학자들은 대략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근대적인 정치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근대 국가의 형성 이런 것들이 nation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바탕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로, 배경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세 번째 관점은 종족적, 상징적 접근. ethno-symbolic approach로 불려지는 그러한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는 nation은 배꼽을 가지고 있다. 아까 그 Ernest Gellner를 비롯한 근대주의자들은 nation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은 nation은 배꼽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nation의 종족적 배경, ethnic한 배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것들을 공통으로 하는 그러한 집단이 nation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정치 시스템, 정치적인 철학, 이념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혈통,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공유한다고 스스로 그런 것에 바탕을 둔 정체성을 형성해 온 그러한 집단이 nation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nation이라는 용어의 라틴어 유래,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natio라는 그 말에는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어 ethnos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natio는 근대로 오면서, 근대의 nation이 되면서 반드시 혈통이나 언어와 문화 이런 것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국가를 구성하는 집단, 국민의 집단으로서 그런 의미를 또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근래 와서는 특히 국가와도 동일시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그리스어의 ethnos는 그러한 식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어떤 혈통을 바탕에 두고 있는 집단으로 그렇게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ethnica라든가 ethnic group이라든가 그런 말이 그러한 것을 뜻하죠. 혈통뿐만 아니라 언어도 같이 쓰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런 동질성이 있는 집단으로 ethnic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종족적, 상징적 접근에 늘 취하는 학자들은 바로 그러한 ethnic한 요소들이 nation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Anthony D. Smith라는 학자입니다. Anthony D. Smith가 굉장히 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nation의 종족적 기원,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Anthony D. Smith는 오늘날의 nation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배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잉태해낸 선행 집단이 있다. 그리고 그 선행 집단이 바로 ethnies라는 것이죠. 그 ethnies의 요소들, 그 종족 집단의 요소들을 보자면 같은 집단의 호칭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혈통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혈통을 진짜로 같이했다기보다 혈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정 장소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를 들어 백두산이다 이런 연관성. 그리고 서로 간에 강한 어떤 유대감, 연대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한 ethnic한 집단에 바탕을 두고 오늘날의 nation이라는 것이 형성된 것이지 그 nation이 근대적인 역사 변동, 사회 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Anthony D. Smith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종족적, 상징적 접근에 속하는 그러한 학자로 또 알려진 사람이 Walker Connor라는 학자인데, Connor는 Ethnonationalism, 종족적 nationalism이라는 그러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nation은 결국은 혈통을 같이 한다는 믿음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아까 그 Anthony D. Smith가 ethnic한 몇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onnor는 그중에서도 특히 혈통을 같이 한다는 믿음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nationalism은 Ethnonationalism 이다라는 것을 Connor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Azar Gat라는 이스라엘 학자가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옹호하는 그러한 저서를 남겼는데 제목 자체가 nations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nation은 그냥 nation이라고 하겠다고 해 놓고도 이것을 민족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nation은 친밀감, 정체성, 연대감으로 맺어진 정치공동체, 그리고 문화와 친족 감정, 혈통을 공유한다는 그것하고도 같은 뜻이겠죠. 친족 감정으로 정의되는 한민족, 하나의 인간 집단과 하나의 국가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집단이 바로 nation이다. 그러니까 nation은 정치공동체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그러한 집단이긴 하지만 그 집단의 바탕에는 친족 감정, 혈통을 공유한다는 믿음, 그리고 문화를 공유한다는 믿음, 그리고 친밀감, 동질성, 연대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Anthony D. Smith의 nation 개념하고 상당히 통하는 개념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은 Nation-state를 보는 관점에서도 뭔가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Nation-state, 이것을 우리는 민족 국가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국민 국가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nation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 이것도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근대 국가를 다 Nation-state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 특히 Anthony D. Smith하고 아까 본 Walker Connor의 경우에는 Nation-state하고 national state를 구별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national state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의 nation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그러한 경우만을 우리는 Nation-state라고 해야 되고 많은 nation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그러한 상황은 national state라고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폴란드의 경우에는, 폴란드의 폴란드인들은 자기네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하나의 ethnic한 그러한 종족적인 그러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고 다른 집단하고 구별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경우에는 그건 Nation-state라고 할 수가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는 굉장히 많은 이질적인 그러한 종족들이 모여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것은 Nation-state라고 할 수가 없고 national state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의 경우는 당연히 Nation-state의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 관점에 따르게 된다면요. 그런데 이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취하는 사람들하고 원초주의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둘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초주의, 아까 그 primordialism. 원초주의를 취하는 그러한 원초주의의 관점을 보자면 그 관점은 진짜로 하나의 집단이 조상을 진짜로 같이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인 거죠. 한국인은 단군의 자손이다. 북한에 가면은 거기 단군 묘가 있다고 하잖아요. 단군이 정말 실재하는 인물이었고 그 단군의 자손이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그 단군의 유해를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단군 묘를 만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nation은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집단이라는 그걸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종족적, 상징적 접근이고 그런 점에서 원초주의, 그거는 바로 그러한 관점을, 그러한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종족적, 상징적 접근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nation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는 제3자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점에서 원초주의와 종족적, 상징적 접근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초주의는 학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게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고 근대주의적 관점하고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nation을 바라보는 그런 학문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두 관점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6년에 Anthony D. Smith하고 Ernest Gellner가 논쟁을 했는데 워릭대학, 영국의 워릭대학에서 논쟁을 벌인 게 있어서 그걸 워릭 논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Ernest Gellner, 근대주의를 대표하는 Ernest Gellner가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대표하는 Anthony D. Smith의 스승이었어요. 스승과 제자 간의 논쟁인데 이 논쟁이 Nations and Nationalism이라는 이 분야의 유명한 저널에 나와 있어서 그 저널을 해당 논문들을 읽어 보면 이 두 관점이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가를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시민권이란, 네이션이란

#### 1-6

#### 동아시아와 한국의 민족 관념

지금까지 nation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소개를 했는데 nation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적 개념이고 그리고 nation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서양사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관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동아시아의 민족 관념을 이 개념들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의 nation 관념을 바라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선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고대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선 역사 해석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고구려의 영토가 어떠했는지 또 고조선이 과연 어떠했는지 그것을 중국사에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사에 편입할 것인지 이런 걸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동아시아 3국, 소위 민족이라는 한자를 공통으로 쓰는 동아시아 3국이 상당히 원초주의적 민족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를 굉장히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복식을 어떤 복식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을 그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는 그러한 경향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중국의 민족 식별 작업에서 나타났는데 1950년대에 중국에서 중국이 중국의 그 소수 민족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규정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중국이 중국이라는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민족이 있고 그 민족 내부에 56개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민족들이 있다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설명을 하잖아요. 중화 그것을 다 포함하는 중화민족도 민족이고 구성하는 조선족도 있고 그다음에 만주족도 있고 백족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한 개별 민족들이 다 있는데 그 55개 민족들 중 한족은 주류 민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테니까 그 50여 개 민족들의 각각이 어떤 식으로 구별되느냐, 다른 민족들하고. 왜 또 55개뿐이냐? 더 많은 집단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규정하는 작업이 5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어떤 민족은 어떤 복식을 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떠한 놀이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념들을 스스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리고 그러한 관념에 바탕을 두고 지금 현재의 한민족이라든가 또 일본 민족이라든가 이러한 민족이 구성되어졌다는 그 사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백낙천 선생은 한민족의 바탕을 이루는 역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백낙천 선생이 쓴 글을 보면은 Eric Hobsbawm이 얘기했던 protonation, 즉 오늘날의 nation하고는 직접적인 연속성은 없는 그러한 전근대의 민족 집단, protonation과 오늘날의 한국을 이루는 이 nation 사이에선 상당한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그 protonational한 그러한 집단이 자기 스스로를 구성해내는 그러한 원형 민족적 자기 상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한민족의 national identity, 민족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protonational한 그러한 자기 상상이 적어도 고려가 삼국을 통일해서, 후삼국을 통일해서 그때 고려 이후부터는 하나의 단일한 국가로 한반도의 역사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원형민족적인 그런 자기 상상이 점점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어 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Eric Hobsbawm은 원형민족적인 집단, protonation하고 오늘날의 nation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이분이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한국에 와 가지고 많은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인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책, 자기 후에 출간이 된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이라는 그 책에서 적어도 각주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동질성이 강하다. 그런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nation의 하나의 특징으로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과 기타 동아시아인들의 민족 관념이 굉장히 ethnic한 면이 강하다. 즉 혈통과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특히 그들이 조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ethnic nation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거에 비해서 프랑스나 미합중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 nation을 구성하는 원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이념을 공유한다든가 철학을 공유한다든가 그런 것에 바탕을 둔 것이지 그러한 동질적인 집단, 특히 혈통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나 미합중국 같은, 그리고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민족 관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하고 동아시아의 민족 관념, 그와 유사한 그러한 종족적 민족 관념이 굉장히 강한 집단으로서 동유럽의 여러 nation들을 말할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동유럽의 민족 관념들을 그런 구별을 하면서 그 양쪽의 차이가 서로 다른 정치적 그런 사건들,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강조하는 학자가 또 있습니다. 아주 민족주의 연구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Hans Kohn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Hans Kohn의 The Idea of Nationalism이라는 이 저서가 매우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은 그러한 시민적 민족 개념, 시민적 Nationalism, 그리고 종족적 민족 개념, 종족적 Nationalism. 이게 대조적인 것으로 보고 서유럽의 시민적 Nationalism으로부터는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동유럽의 종족적 Nationalism에 의해서 결국은 동유럽 쪽이 나치즘 그런 쪽으로 전체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Nationalism의 두 형태로부터 정치의 서로 다른 정치 형태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담론을 전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94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후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동유럽에 전체주의가 왜 생겨났느냐? 그들은 민족 관념 자체가 굉장히 종족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동아시아에도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이 왜 그렇게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말이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말이죠. 왜 그런가?

종족적 민족주의적인 관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 가지고 이러한 두 Nationalism의 형태를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 두 nation 관념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런 학계의 자성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족, nation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자성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치적, 또 시민적 그러한 이념을 공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생겨났다고 스스로 믿는 그러한 민족도, 그러한 nation도 교과서를, 어린이들이 보는 교과서 본다고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적 연원을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상이 누군지를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질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이 특히 19세기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내 동생이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아들이 학교를 갔다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애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나라도 역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런 것에 대한 탐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혈통을 공유했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로 혈통을 공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원초주의적인 그러한 견지에서 민족을 상상하는 것은 극히 사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화를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nation이 형성된다고 믿는 것은 사실은 모든 nation이, 서유럽의 nation도 역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공통의 동질성을 형성해 온 것은 맞잖아요. 이념도 역시 문화 아니겠어요. 정치 문화도 하나의 문화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의 이분법을 가지고 어느 쪽은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느 쪽은 혈통이나 문화를 공유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nation, identity의 형태를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특히 거기다가 종족적 관념이 강하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nation의 역사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말이죠, 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뭐예요? 우리 붉은 악마죠. 한국이 월드컵에서 경기를 펼칠 때 시청 앞 광장에 붉은색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나와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무엇입니까? 오른쪽은 바로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축구를 할 때 삼색기를 들고 나와 가지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 두 사진이 보여 주는 것이 동일한 현상인가? 상이한 현상인가? 우리 2006년 월드컵 때 보리스 배커라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리스 배커가 TV에 나와서 독일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이 열정, 이것을 보면 애국주의는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배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애국주의는 이처럼 그 밑에 제가 써 놨듯이 Patriotism generally has a positive connotation.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함의를 애국주의는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Nationalism generally has a negative connotation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저 응원 문화는 Nationalism이고 이쪽 프랑스의 응원 문화는 Patriotism이냐?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애국주의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nation의 동질성이랄까 그다음에 정체성, 연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인지는 사실은 좀 따져 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의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들과 결합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 동아시아의 민족 관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우리가 또 맨 마지막 이 강좌의 맨 마지막 주 차에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첫 강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논의했는지 잠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tizenship이라는 용어가 많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래서 citizenship을 시민권으로, 그리고 citizen은 시민으로 하기보다는 국민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적, nationality와 시민권 citizenship은 인적 범위 면에서 일치하기도 하고 불일치하기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과거에 한 나라에서도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주권에 복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nation의 여러 의미와 또 번역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그런 나머지 nation을 nation으로 그냥 표기하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민족 또는 국민으로 번역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ation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으로서 원초주의, 근대주의, 종족적, 상징적 접근 이렇게 세 관점을 살펴보았고 동아시아의 nation 관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유럽의 nation 관념하고 동유럽의 nation 관념 또는 동아시아의 nation 관념이 서로 이렇게 각각 시민적, 정치적 nation 관념하고 또 종족적, 혈통적 nation 관념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특징들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지만 특징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분법이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특정 국가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자아내는 식으로 활용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최근의 학계 동향을 소개를 했고 이분법을 극복하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 강의를 전개해 나가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Lecture

# What is Citizenship, What is Nation

## 1-1

## Prologue: Citizenship and Nation in Korea

hello. I am Lee Lee Chulwoo, who is in charge of the lecture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Korea.'

Before starting the lecture, I would like to briefly tell you what the whole purpose of this lecture is and how it is structured.

The title of this lecture is '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Korea).' When I came up with the title of the course, I first thought of the English title. I thought of the English title a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Korea.' I expressed Citizenship as 'citizenship,' and Nationhood as just 'nation.' Some may be wondering why I used Korean for citizenship and why I used the word 'nation,' itself,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words familiar to us, like '민족' and '국민.' I will express the choice of such a term later.

In this lecture, who is Korean and who are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What are the principles that make up the Korean, the Korean nation, or the Korean people, that is, to unite the people? And what are the requirements to become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im to answer these questions. More specifically, this lecture, this course covers the following topics:

First, let's look at what the title 'citizenship' and 'nation' mean.

Then who are Koreans? Here, when we say '한국인,' it sometimes means, then sometimes it means the people of a country,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other cases, it means all Koreans living here and there in the global village. Among those '한인' or '코리안(Koreans),' you may ask why some are Korean citizens and some are not Korean citizens. I would like to answer questions like that.

That is, foreign nationals, enjoy in Korea Then, what kind of status and what rights can Koreans who are not Korean citizens? This issue will also be covered in this lecture.

How did a person who is currently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become a citizen of the ROK? And how can a person who is not yet a citizen of the ROK become a citizen of the ROK? There are people who become Korean citizens at birth, and there are people who were foreigners and later became Korean citizens. Let's take a look at what principles a person who become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t birth is like and what kind of requirements a person who become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later must meet to become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ontrary, wouldn't it be possible to lose the status of a citizen after being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Let's take a look at how this might happen. Wha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o Korean citizens have? Those things are in the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rights and duties the Constitution gives to the people. By the way, do foreigners not have an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t's not like that. The Constitution also protects the basic human rights of foreigners. Citizens and foreigners alike are also protec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most important system that separates citizens from foreigners is the right to vote. It mean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olitics. Koreans vote in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ers are not allowed to vote, right? By the way. Many Koreans live abroad. Among them,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permanent residency in a foreign country and live in that country all the time. Can such people equally have the right to vote?



On the contrary, I said that the right to vote is to separate the locals from foreigners. Isn't there a foreigner who has a job and lives in Korea all the time? Aren't there more and more foreigners who speak Korean very well, know Korean culture well, and have many Korean friends? Wouldn't it be unfair to say that such people cannot participate in any decision-making just because they are foreigners? Then, let's discuss issues such as to what extent foreigne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what is the ROK doing about that.

Next, aren't there people who are citizens of the ROK and also have nationality abroad? It's a matter of how to treat these people. This is called dual nationality. These days, the law does not use the word '이중국적(dual nationality),' but use the word '복수국적(multiple nationality).' It means that there are multiple nationalities. There are people with two or more nationalities like this, and there are people without any nationality. Are there people like that in Korea? Yes, there is. What was the reason for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how should such people be protected?

Lastly, what rights will the members of Korea enjoy in the future? What will happen to the status and rights of not only Korean citizens but also foreigners living in Korea? And what is the principle that makes a Korean as a Korean? Will it be different from now? With this imagining of the future, I will end this course.

Then, let me start the first week's lecture.



## What is Citizenship, What is Nation

### 1-2 What is citizenship?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what '시민권(citizenship)' and '네이션(nation)' mean.

As mentioned earlier, '시민권' is a translation of the English word citizenship. Where does the English word 'citizen' come from? There is a word 'citesein' in Norman. It looks like the German word 'sein' was added to the French word 'cite,' meaning 'city.' It looks like this mixture of Latin and Germanic languages. Citizen is called 'citoyen' in French. This is known to have originated from the archaic word 'citeien.' If you look at the Greek and Roman terms for citizen in the same sense, it means a political community, such a politically organized community, typically a state. There is a Greek and Roman term for a person who enjoys political rights as a member of such a state or organized political community. In Greece there were people called *polītēs*, who were full members of a political community or state, an organization called 'polis' or, in Greek, 'politeia(πολιτεία)'. In Rome, the Roman term for a country, that is, 'polis' or 'politeia' in Greek, was 'civitas', and members of the 'civitas' were called 'civis'. Therefore, 'civis Rōmānus' means 'citizen of Rome'.

So, where did you first hear the word 'citizenship'? This picture on the screen is the entry card I used when I entered the Philippines about 10 years ago. As I know, the format of this card has changed a bit since then. If you look here, the word 'citizenship' comes out. Here says to fill in the 'citizenship' or 'nationality.' What should we fill in there? We have to fill in our nationality. So, I also had the experience of writing Korean and also writing Republic Of Korea. In other words, you can see that 'citizenship' is used in the same sense as 'nationality,' which means '국적' in Korean. Didn't citizenship and nationality appear in parallel on the card you just saw? In France, nationality is called 'nationalité'. In Germany, it is said that they use such a term as 'Staatsangehörigkeit'. The German word 'Staatsangehörigkeit' means belonging to a country, so it corresponds exactly to Korean word '국적'. In Austria, the term 'Staatsbürgerschaft' is used to indicate nationality. Bürger means people who live in cities, i.e. citizens. Therefore, 'Staatsbürgerschaft', which means nationality, has the meaning of national citizenship.

Citizenship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nationality, but do the personal boundaries and boundaries of citizenship exactly match nationality? Some countries do not. There are countries where the constitution and laws distinguish between '시민권(citizenship)' and '국적(nationality)'. The United States do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persons who become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but are not citizens, in the term of American law, '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category of such persons which this law stipulates. who are these people? Overseas occupied territories, like American territory Samoa, which an island in the Pacific ocean, and Swains Island, which also is an island in the Pacific ocean. These people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in the United States, unlike' people who become citizens by birth in any of the 50 United States states. They are not 'citizens', they are just 'nationals'. They are not such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but they can only be said as persons with only nationality.

There is a French philosopher called Diderot. The French philosopher Diderot said the following about citizen, 'citoyen' in French. A 'citoyen' is a member of a free society composed of several families and enjoys the rights of that society. He once said, "Women, children and servants are,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only given the status of members of the citizen's family and are not real citizens."

The Mexican Constitution is also interesting. Article 30 of the Mexic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Mexican nationality is acquired by birth or naturalization. Article 34 states that any person who has reached the age of majority and leads a sound life among those who have Mexican citizenship becomes a citizen of the Republic.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here,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re divided into Articles 30 and 34 like this, and are regulated separately.

In this way, we can see that citizenship means the status of having the most complete rights in a country among people with nationality, especially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tate affairs. And sometimes it means the whole bundle of rights and obligations that such people have. The citizenship of a person who enjoys full rights as a member of the state in this way refers to the domestic aspect of belonging to the state and is conceptually distinct from nationality, which refers to the external or international aspect. And when the scope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coincides, the citizenship and nationality eventually become the same scope. Namely, Citizenship and nationality coincide in scope.

But didn't you see that in case of disagreement, there are people who are just nationals, not citizens of the US, which we saw earlier? You can see such discrepancies. Meanwhile, when the citizenship is called a package of rights, the contents of the rights, and the prospect of the rights continue to expand.

A British political philosopher named T.H. Marshall once gave a lecture on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t Cambridge University in 1949. This lecture is still very much a classic and is becoming a lot of talk. Here T.H. Marshall, as the contents of citizenship, civil rights, or in more familiar terms, '자유권(civil liberties)'. He points out that the contents of civil rights, or the civil liberties, are increasingly extended to political rights and then to include social rights. There, he only talked about civil liberties, political rights, suffrage, and social rights. After all, there are also economic rights and cultural rights. And in this way, we can see that the content and scope of citizenship are continuously expanding.

On the other hand, citizenship also has another meaning. It also means participation in a group, how much we participate when we say "we participate in a community," and how much we are recognized as members of that community. When people in a particular area are discriminated against, they are second-class citizens. You even talk like this. You can also see people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say something a bit self-deprecating, like, "Are we second-class citizens?"

Also, there are countries where people who have contributed are treated differently than people who were citizens from the beginning, even though they are the same people. In that case, they may think that they're treated as second-class citizens. We often hear that. Not only in Korea, but all over the world, if you look at the fact that there is such a regulation that a naturalized person cannot be president, such people are discriminated against from birth, compared to people who are citizens. In that sense, there are cases where they say, "We are second-class citizens."

Then, if this refers to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r recognition, we do not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foreigners and citizens. Foreigners can be treated as well as citizens, and there are countries in which foreigners are treated better than citizens. For foreigners who have invested a lot are examples. Then can we say that such a foreigner also has citizenship? If that is generally the case, can we ask "Then it means that the foreigners also have citizenship?" That's where this problem comes in. If we use the term 'citizenship' to mean the package of rights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foreigners can also be said to have citizenship.

I once saw an article by a scholar entitled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t implies that foreign workers can enjoy the same rights as citizens. However, the use of such a term, that is, if the word 'citizenship' is used that can be obtained by foreigners and does not necessarily a term that applies only to the natives, and does not mean that, It shows some ideal goal, however, isn't it true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citizens and foreigners in terms of rights? I think it's a realistic perception to see citizenship as a position enjoyed by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citizenship is also used as a word that means the attitude of people living in a community, keeping order well, and yielding to others, and such a good citizenship attitude. It is sometimes used as "You must be a good citizen" or "You must have good citizenship". In that case, the term citizenship might be better translated as '시민성(civic attitude)' rather than '시민권(citizenship)'.

I've seen the use of the term 'citizenship' in that sense as a civic attitude by political scientis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n, shall we summarize the use of this term so far? First of all, I will translate '시민권' as citizenship. And I will define citizenship as a bundle of rights and obligations enjoyed as members of a political community.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a political community is the state. I will proceed with this lectu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ackage of rights and duties enjoyed as a member of a nation is ultimately citizenship'.



## What is Citizenship, What is Nation

### 1-3

### Citizen, the People, Civil, and the Public

A little while ago, in Korea, it is common to translate '시민' as 'citizen' and '시민권' as citizenship. I said this, and I also said that I would translate citizenship into '시민권'. And I said that we are using the term '시민성(civic attitude)' instead of '시민권(citizenship)' as a term that means the attitude of a good citizen, a sound citizenship.

However, there are times when I wonder if it is a good translation to translate 'citizen' as '시민' and 'citizenship' as '시민권'.

An acquaintance once told me an interesting anecdote. He went to a foreign country, and when he was about to get off the plane, he was told to write citizenship on his immigration card. A card similar to the one we saw earlier, right? At that time, he didn't know what it meant, what citizenship meant. He told me about his own experience that he filled in 'Seoul' there. Because city means '도시' in Korean. And in the origin of the word 'citizen,' as we saw earlier, there is 'cite', which means city, so it's understandable. By the way, in some Asian countries, there are countries that express citizenship as '국민(people)' and citizenship as '국민권(right of the people)'.

In the case of China, they use such words as 'peopl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expresses its citizens as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s the legal terminology of those countries. The law says that. It is said that the term '공민(公民;Gongmin)' was used in the past in Korea as well. It sounds a bit unfamiliar to me now when I say 'gongmin', but after liberation and even in the 1950s, the term 'gongmin' was used a lot. It is shown in this picture that it is a 'civics textbook' that emphasizes the right attitude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and the attitude of a good citizen as mentioned earlier. Likewise, the term 'gongmin' has been widely used in textbooks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 subject called 'gongmin'. So, as a term meaning citizen, the term 'gongmin' was used a lot in the past in Korea as well. However, since some time ago, the term 'gongmin' has not been heard very often. Still, although the term 'gong-min-gwon(공민권;citizenship)' appears very rarely in laws and regulations, the term 'gongmin' is not used very much these days.



Instead, now we don't use the term 'gongmin(공민)' any more, instead we use the term 'gukmin(국민)'. Therefore, the word 'people' is commonly used as a term that means persons who have rights and duties as a member of the state. Politicians use the word 'people' a lot, and they use the expression 'always with the people' a lot, and there is a political party called '국민의힘(The People Power Party(PPP))' among political parties in Korea. The English name of this political party '국민의힘' is 'The People Power Party.' Here, '국민' is translated as 'The People.' By the way, 'The People' is a term that appears in the constitutions of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hrase 'the people' appears. When it comes to 'The People', I usually think that the translation of '인민(人民;Inmin)' would be more appropriate. But this term, '인민(inmin)', is something we're not all that familiar with. The term 'inmin' is not used very much in Korea these days. In fact,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modern constitution in 1948, it is said that the term '인민(inmin)' was used instead of '국민(gukmin)'.

The first draf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ritten by Jin-oh Yoo, the draft constitution submitted to the judiciary centered on such a draft written by Jin-oh Yoo, contain the word 'Joseon inmin.' And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rests with the inmin,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inmin. However, 'inmin' were excluded because it was a term used by communists. So in the end, our Constitution, which was finally adopted in 1948, adopted the word '국민(gukmin)' instead of '인민(inmin)'. On Article 2 of the 1948 Constitution at that time, Article 1 Paragraph 2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t states that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belongs to the people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gukmin).

In conclusion, in this lecture, citizenship is just translated as the term '시민권'. In fact, the term '공민(gongmin)' may be good as for translation of 'citizen', but now it is a bit unfamiliar. And the term '시민(citizen;simin)' is used a lot by scholars, but it has the meaning of people who live in cities, and the origin of the word is city people. However, since it is now being used in the meaning of 'a member of the whole country' or 'a member of the nation' rather than an urban context, I will express this as a '국민(gukmin)' which is familiar to us. In other words, I will express citizenship as '시민권' and citizen as '국민' during this lecture.

## What is Citizenship, What is Nation



### 1-4 What is 'Nation'?

This time, let's look at the meaning of the second concept 'nation' in the title of this lecture.

It is known that 'nation' comes from the Latin word 'natio.' What does this mean? As we commemorate the fact that Jesus was born, we talk about it as 'nativity.' Words like 'natio', 'nativity' or something like that contain the meaning of being born. So, in the end, 'natio' has the meaning of being born into a group with the same lineage, coming out of the mother's womb and entering that group. So, in the end, the word 'natio' means a group that shares the same lineage. I can tell you that the original word 'natio', which is the origin of 'nation', meant that.

Earlier, I mentioned a few terms for political community in Greece and Rome. In Rome, the term 'civitas' was used as a term for a political community. 'Natio', therefore, was used as a term to mean a kinship group distinct from 'civitas', which meant a political community.

Meanwhile, it is said that a Greek word 'ethnos' existed as a term corresponding to the Latin 'natio'. This 'ethnos' means, in Greek, a group that shares ancestry. 'Polis' is a Greek term that means political community and we usually talk. And there is 'politeia', which is a term synonymous with the Latin 'civitas'. There was an 'ethnos' as a group sharing ancestry, distinct from 'politeia', which means the political community. I can say that the Latin 'natio' and the Greek 'ethnos' were used in ancient countries at the time as such terms that communicate each other.

In this way, the past term corresponding to 'nation' has been used in the sense of a group that shares lineage, and the term 'nacioun' is said to have been used as a word for 'nation' in Middle English. Until then, the term 'nacioun' still contained the meaning of a group of people with a common bloodline. However, as time goes to modern times, the meaning of 'nation' gradually became separated from lineage, and was transformed into a group that formed a political society and an entire group of members that formed a political society. Then, around the time of the French Revolution, 'nation', or 'nacioun' in French, became a term for a group of people. So, as the French Revolution took place, the 'citoyen', the rights of the French people, were declared. It is called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 so we translate 'citoyen' as '시민(citizen)'. But as I said earlier, in this lecture, I said that I would express it as '국민(the people)'. So 'nacioun' eventually came into use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s a term that meant a group of citizens, that is, a group of people.

Anyway, the 'nation' is also used as a term to mean a country today. Meanwhile, the nation is also used as a term to mean a country, now. Then who are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hose are the countries. When I say United Nations, it means a union of nations. However, strictly speaking, it should be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is made up of states. However, perhaps because the United States was already using the term as the name of their country, when the UN was founded, the organization was named the 'United Nations.'

There is also the word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s such an adjective that mod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So, it is a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but at that time, the word 'nationa'l is being used to mean a country. So, in the end, the word 'international' is synonymous with 'interstate.'

In this way, the word 'nation' started with the meaning of a group that shared bloodlines, and in recent years it has also been used as a term to mean a nation. Correspondingly, the word 'nationality', in French, 'nationalité', is derived from 'nation'. So, in the end, if you go into the origin of the term 'nation' and the term 'nationality', they are very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So, I can tell you that 'Nationality' being used as a term meaning '국적' in Korean now is such a phraseology based on the fact that 'nation' is being used as a term meaning country.

As such, the word 'nation' is very difficult to translate. So, if you look at the translation example now, it's very complicated. Nationalism, that is, if you look at how the concept of 'nationalism' based on 'nation' is translated in Korea, it is translated as '민족주의' and sometimes it is translated as '국민주의'. And in some cases, such an explanation as '국가주의' is attached.

Meanwhile, there is a concept called 'nation-state' as a concept that is used a lot in our social sciences. Sometimes it is translated as '민족 국가', and sometimes as '국민 국가'. So it's very confusing. In this way, 'nation' means a group that shares common lineage and culture, and also means a group that forms a political community or a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clarify each of these two aspects, German people put a word in front of nation to make it clear in what sense it is a nation. So 'Staatsnation', i.e. state nation, 'Kulturnation', cultural nation, 'Volksnation', ethnic nation that includes more culture and lineage. By using such a term, it shows such an effort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word nation, which is used in complex and diverse meanings. And I think that the use of these terms is quite helpful in understanding.

Earlier, we saw that '국적' is used as a term meaning nationality. And I can tell you that because 'nation' is used to mean a country, 'Nationality' came to be used as a term meaning the status belonging to a country, that is, '국적'. However, like 'nation', in fact, this 'nationality' has two meanings. And since these two meanings are used differently in legal terms, a lot of confusion is occurring.

A prime example of this is the Refugee Convention. If you look at Article 1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re is a provision defining a refugee. Who are refugees? Refugees are people who fled because of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But for what reason are they being persecuted? Five grounds for persecution are listed. Race. Persecution by race. Religion, persecution by religion, and persecution by nationality. Additionally, there may exist persecution for belonging to a particular social group. Becoming a political prisoner can also be the reason. Persecution by political views. They are five reasons for persecution. Among them, persecution for reasons of nationality. What is the nationality at this point? After all, this could include nationality as well. A person without a nationality, for example, is said to be a Roman, anyway, there is a group called Gypsies. They are such a people who wander around in Eastern Europe, but their nationality is not clear in any country. Some may have nationality, but some may not. So there are cases where such people are persecuted, and this can be an example of persecution for nationality. However, seeing it as persecution for belonging to a specific ethnic group would reflect the reality better than that.

As such, 'Nationality' is used more to mean '국적'. It is such a familiar concept to us, but looking at the definition of refugee in Article 1 of the Refugee Convention 'Nationality', of course, includes the meaning '국적', but rather than that, it is a term that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 person is persecuted for belonging to a specific ethnic group, as stated in Article 1 of the Refugee Convention.

For example, haven't ethnic conflicts occurred in the Balkans in the past? The people who occupy the majority persecute other peoples. When Yugoslavia was divided into several countries, former Serbs lived in Croatia and Croats lived in Serbia. In addition, there are Serbs living in Bosnia and Herzegovina, and in such a situation, a great number of massacres were caused by ethnic conflicts, right?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a nation that occupied the majority in a region or country persecuted another nation so the minority escaped the persecution. In that sense, 'nationality' is being used as a term that means belonging to such a nation.



However, the second nationality in this article does not mean that. Nationality, which comes second, means one's nation. In other words, someone has to evacuate outside the country of one's nationality, outside the country of one's nationality, to become a refugee. Likewise, the third 'nationality' also refers to nation. In this case, people without nationality are meant to flee from their country of residence. Therefore, the second and third Nationality means one's nation, and the first 'Nationality' also refers to nationality, but rather than that, it is used as a term that refers to the status belonging to a particular nation. As such, when the word 'nationality' appears three or more times in the same article, the meaning is different.

The term nation has so many meaning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translate it.

Since 'nationality' is ultimately derived from 'nation', it is generally used as a term meaning one's nation, but you can see that it is also used as a term meaning status belonging to a certain nation.

Anyway, in this lecture, the meaning of 'nation' is not one, so I will just express it as 'nation'.

And in some cases, when it is used as a term to mean a group that shares lineage and culture, we translate it as '민족(minjok)'. In addition, when such a term is used to refer to the status of a member of a country belonging to a country and the group that constitutes a member of that country, I will also express it as '국민(gukmin;the people)'.

However, since 'nation' has such a complex meaning, I will just express it as 'nation' here.

## What is Citizenship, What is Nation

### 1-5

### Three Kinds of Perspectives of Nation

In this way, we have seen that the term 'nation' has many different meanings.

The term 'nation' is used in a variety of ways, and depending on which aspect is emphasized, the viewpoints of scholars looking at the 'nation' are differentiated. So, there are many viewpoints to look at the 'nation.' So I've distinguished it into three things, and the first one can be said to be a primitive perspective. It can be called 'primordialism.' This is the viewpoint of primordialism. For example,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point of view that people feel when they speak in Korea. Koreans. We often say like "We are descendants of Dangun."

"Korean is a descendant of Dangun." We have a belief that we are descendants of Dangun, a mythical figure from 4,000 years ago. This is a prime example of primordialism.

So, for a 'nation', or you can use 'ethnic group' instead, but this just natural, self-evident.

A position that believing you just enter that group when you are born, you cannot escape from that group, and really believing that the group shares some blood is primordial viewpoint.

There are scholars in the historical academy who approach the 'nation' from a primordial standpoint. The representative person is Danjae Shin Chae-ho. Danjae Shin Chae-ho speaks of ancient ethnic groups as Dangun Joseon, Buyeo, and Goguryeo as our direct ancestors in his book, Joseon Sanggosa. So he believes that history is the struggle between 'a(我)' versus 'bi-a(非我)', that is, 'me' and 'not me'. And, 'our ethnic group is a people that has been passed down as it is from the old days', such a belief is being expressed there. Rather than thinking that this is a particularly special kind of thinking, I think that many Koreans have this kind of thinking.

The second point of view can be called the modernist point of view.

It can be called a modernist point of view, and people who stand in this position say things like 'nation doesn't have a belly button'.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not having a belly button' mean on earth? It means that a nation does not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antecedent group that gave birth to it. Historically, even if you just look at the background and background of a group of nations, there is not necessarily such a special continuity between a certain group and the current nation, going up to the ancient times in the past.

They emphasize this point. In other words, from this point of view, I said that this position is a modernist point of view. The very nation is a product of the modern era, and there is no continuity with those groups that existed in the pre-modern era, ethnic groups, and those groups that shared lineage and culture. It can be said that making such a claim is a modernist point of view.

There is a 19th century scholar named Ernest Renan. This man wrote a short book titled 'What is a Nation?' In the book, this man said that the existence of a nation, because it is written in French, the existence of a 'citoyen' is a daily referendum. What this means is that a nation is not a single group that has been consistently passed down from ancient times, or belonging to a nation is not so self-evident. Rather, belonging to a nation means that people choose in specific situations. So, in that sense of emphasizing people's selectivity, Renan is known as a 19th-century scholar with a modernist nation view.

Then there is a famous scholar named Ernest Gellner. He's the one who said the very thing 'nation doesn't have a belly button'. Ernest Gellner, while saying this, gives the example of Estonia. Estonia is a country on the coast of the Baltic Sea that became independent after seceding from the Soviet Union. It was a republic in the Soviet Union in the past, but became independent in the 1990s. The Estonian language as Finno-Ugrian is known as very distinct from the languages of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Europe. So, it is a nation that has such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nations. This Ernest Gellner made such a shocking claim that the Estonian nation was not such a self-conscious group with such clear boundaries from the past, but was suddenly created by some intentional effort in the 20th century. He claims that in the 20th century, a kind of nation was newly formed by building a museum and collecting artifacts. This is a very shocking statement, but anyway, Ernest Gellners made such a claim, and then there is a book called 'Nations and Nationalism' as a famous book published by Gellner prior to that claim.

The second point of view can be called the modernist point of view.

It can be called a modernist point of view, and people who stand in this position say things like 'nation doesn't have a belly button'. What does this mean? What does 'not having a belly button' mean on earth? It means that a nation does not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antecedent group that gave birth to it. Historically, even if you just look at the background and background of a group of nations, there is not necessarily such a special continuity between a certain group and the current nation, going up to the ancient times in the past.

They emphasize this point. In other words, from this point of view, I said that this position is a modernist point of view. The very nation is a product of the modern era, and there is no continuity with those groups that existed in the pre-modern era, ethnic groups, and those groups that shared lineage and culture. It can be said that making such a claim is a modernist point of view.

There is a 19th century scholar named Ernest Renan. This man wrote a short book titled 'What is a Nation?' In the book, this man said that the existence of a nation, because it is written in French, the existence of a 'citoyen' is a daily referendum. What this means is that a nation is not a single group that has been consistently passed down from ancient times, or belonging to a nation is not so self-evident. Rather, belonging to a nation means that people choose in specific situations. So, in that sense of emphasizing people's selectivity, Renan is known as a 19th-century scholar with a modernist nation view.

Then there is a famous scholar named Ernest Gellner. He's the one who said the very thing 'nation doesn't have a belly button'. Ernest Gellner, while saying this, gives the example of Estonia. Estonia is a country on the coast of the Baltic Sea that became independent after seceding from the Soviet Union. It was a republic in the Soviet Union in the past, but became independent in the 1990s. The Estonian language as Finno-Ugrian is known as very distinct from the languages of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Europe. So, it is a nation that has such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nations. This Ernest Gellner made such a shocking claim that the Estonian nation was not such a self-conscious group with such clear boundaries from the past, but was suddenly created by some intentional effort in the 20th century. He claims that in the 20th century, a kind of nation was newly formed by building a museum and collecting artifacts. This is a very shocking statement, but anyway, Ernest Gellners made such a claim, and then there is a book called 'Nations and Nationalism' as a famous book published by Gellner prior to that claim.

Then there is Eric Hobsbawm, another famous scholar with a modernist perspective. He is known as a Marxist historian. This book by Eric Hobsbawm is titled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It's easy to confuse the title with Gellner's book. Gellner's book is 'Nations and Nationalism' and Hobsbawm's book has the words 'since 1780' behind it, so it's easy to get confused. But it is true that Gellner and Hobsbawm have a common point of view. Hobsbawm referred to the pre-modern people as 'Protonation,' and claimed there was such a group similar to the nation in the pre-modern era as well. It is called 'Protonation,' and I have seen an example of Korean academia translating it as '원민족(wonminjok).'

However, there is no continuity between the pre-modern 'Protonation' group and today's modern 'nation.' He emphasized that the modern 'nation' is a newly created group based on such social changes due to various social changes in modern tim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he is a representative modernist scholar.

Another well-known representative of the modernist perspective, especially recently, is Benedict Anderson. Benedict Anderson's most famous book is 'Imagined Communities.' A nation is an imaginary community' Don't you hear that word a lot these days?

So, a nation is not something that is self-evident, a group that is given to a person by belonging to it right away when they are born, and a group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the past with continuity. Rather, a nation is such a group that is formed at what stage, at what stage of history. That's what Anderson is emphasizing.



And Anderson puts great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in the formation of a nation.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allowed people living in a much wider area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doing so, they were able to form a common identity. He emphasizes that prior to that, when there was no printing technology in the past, people who lived very narrowly in a very local community with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much wider communities that have formed today's modern nation have thus emerged.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modernist point of view. Such scholars, who advocate a modernist perspective explains that roughly,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development of a modern political system, and the formation of a modern state are historical facts and backgrounds that form the basis for these things to form a nation. Then, the third point of view is the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It is such a view called the ethno-symbolic approach. In this view, the nation has a belly button. I told you that the modernists, including Ernest Gellner, said that 'the nation does not have a belly button', right? However, those who stand in this perspective emphasize that a nation has a belly button. In other words, they are paying attention to the ethnic and ethnic background of the nation. A group that shares common lineage, language, or culture forms the foundation of a nation. Rather than something like a political system, political philosophy, or ideology, a nation is a group that has formed an identity based on such things as sharing such ancestry, language, and culture. They have those point of view.

The Latin origin of the term nation earlier, that is, the word 'natio', used in ancient Rome, contained the meaning of a group that shared bloodlines. and it has almost the same meaning as the Greek word 'ethnos'. I explained you like above, right? Later, as this word 'natio' came to modern times and became a modern nation, it had a strong meaning as a group constituting a nation and a group of people, rather than a group that necessarily shares lineage, language, and culture. And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common as a term having such a meaning that is identified with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Greek 'ethnos' does not change its meaning in that way and is still used as a group that is still based on a certain lineage. So, the words like 'ethnie' or 'ethnic group' that I mentioned earlier mean those things. You can see that the word ethnic is used as a group that shares not only lineage but also language and cultural homogeneity. Scholars who always take this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emphasize that such ethnic elements are what form the basis of a nation.

The representative scholar is a scholar named Anthony D. Smith. Anthony D. Smith left a lot of writings. The most representative among them is the book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Here, Anthony D. Smith claims that today's nation has a belly button, as mentioned earlier. So, there is a group of predecessors who conceived it. And that preceding group is called 'ethnie.' Taking a look at the elements of the ethnie, the elements of the ethnic group, they have the same group title and have the same faith in the lineage. So, rather than really sharing the bloodline, they have faith in the bloodline. Then they have a shared history and a shared culture that sets them apart from other cultures. And they have a connection with a specific place. An example of this is Mt. Baekdu. And they're defined as a group based on a certain strong bond and solidarity with each other. Today's nation was formed based on such an 'ethnic' group, and the 'nation' did not suddenly arise due to modern historical or social changes. Anthony D. Smith emphasizes this point.

Another known scholar who belongs to this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is a scholar named Walker Connor. Connor has written such a book called 'Ethnonationalism', which means ethnic nationalism. Here, a 'nation' is a group formed by the belief that they share the same lineage in the end. Earlier, I mentioned that Anthony D. Smith argued that a nation is a group created based on several ethnic factors. And Connor emphasizes, among other things, that this is a group formed by the belief that they share blood. So Connor emphasizes that all nationalism is Ethnonationalism. More recently, an Israeli scholar named Azar Gat has written such a book advocating a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and the title itself is 'nations.' So, the title called '민족(minjok)'. But here, even though I just said that I would say a nation just as a 'nation,' I said that it's '민족' because he's very emphasizing that point.

In other words, 'nation' means the same thing as a political community formed by intimacy, identity, and solidarity, and sharing culture, kinship feelings, and lineage.

The Korean people defined by kinship feelings, a group in such a state where one human group and one nation are united is nation. In other words, a nation is a group that constitutes a political community or nation, but it is quite similar to Anthony D. Smith's nation concept in that the group is based on kinship feelings, belief in sharing lineage, belief in sharing culture, intimacy, homogeneity, and solidarity.

Scholars who take a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are claiming something unique from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nation-state. What we generally call Nation-state can be translated as a '민족 국가' or a '국민 국가', but this is also a difficult word to translate because the translation differs depending on which aspect of nation is emphasized. But in general, we usually talk about all modern countries as Nation-state. However, scholars who take a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especially Anthony D. Smith and Walker Connor, who we saw earlier, insist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ation-state' and 'national state.' They argue that most countries today are national states. So, in other words, only those cases in which one nation constitutes one nation should be called 'Nation-state.' A situation in which many nations constitute one nation should be called a 'national state.' For example, in the case of Poland, Poles believe they are a homogenous group that shares a homogeneous ethnic background and a very strong sense of being distinguished from other groups. Therefore, in the case of Poland, it can be called a Nation-state, but in the case of France, France cannot be called a 'nation-state', but 'a national state', because it is a country created by the gathering of so many disparate races. They're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these concepts. How about Korea?

The case of Korea can of course be a good example of a 'nation-state' if you follow this point of view. However, people who take this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are often confused with those who take the primordialism position. But in fact, the two are to be distinguished. So if you look at the primordialist point of view, that's the point of view of people who really hold that belief that a group really shares ancestors. Koreans are descendants of Dangun.' If you go to North Korea, there is a tomb of Dangun there. Dangun was a real person and they a descendant of Dangun. The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now have such a belief. Based on that belief, the remains of Dangun were discovered, and then the tomb of Dangun was made. So there are a lot of people with that point of view.

So, a nation is a group created by people with such a point of view, and it is a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to look at it from a third person's point of view. In that respect, primordialism, that's the point of view, that's the point of view of people who actually hold that belief. The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primordialism in that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such beliefs and research is conducted from a third-party perspective that a nation has been formed based on such beliefs. In that this primitivism is not an academic opinion, but rather a viewpoint that people generally hold, We can treat it a little differently, and we can make some comparisons as an academic point of view that looks at the nation from a modernist perspective and a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There is such an argument that shows the stark contrast between the two points of view. That's what Anthony D. Smith and Ernest Gellner argued in 1996. There was a debate at Warwick University, Warwick University in England, so we call it the Warwick Controversy. Ernest Gellner, who represents modernism, was the master of Anthony D. Smith, who represents the tribal and symbolic approach. It is a debate between master and disciple. This debate is published in a famous journal in this field called 'Nations and Nationalism,' so if you read the corresponding papers in that journal, you can understand very well how these two viewpoints are distinguished.

## What is Citizenship, What is Nation

### 1-6

### Idea of Nationality in East Asia and Korea

So far, we have introduced the viewpoints of the nation, but the concept of nation itself is a Western concept, and the viewpoints of the nation are all viewpoints based on Western history. So, I wonder if we can explain the ethnic concept of East Asia well with these concept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sian people's concept of nation?

First of all, the ancient history debate is very fierce among our East Asian countries.

Between Japan and Korea,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is being developed very fiercely, with the Imna Ilbon-bu theory at the center. Then, especially between China and Korea, isn't it escalating to conflict between countries because of the so-called Northeast Project? So, there are many conflicts over what the territory of Goguryeo was like in the past, what Gojoseon was like, whether i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Chinese history or Korean history. Looking at this, I have such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which use Chinese characters in common, have a fairly primitive national concept.

And one can also see the aspect of recognizing culture as a very fixed thing. So, 'what kind of clothes do Koreans wear and what kind of food do they eat' I think that there is not a little such a tendency to define some representative of these things as a little essential.



Such a tendency appeared prominently in China's ethnic identification work. In the 1950s, work was done in China to define what the culture of China's minorities was. Chinese people explain that China has one nation called China, the Chinese people, and within that nation there are 56 ethnic groups. The Chinese people, including all of them, are also an ethnic group, and there are Koreans who make up it, and then there are Manchus and Baeks, and so on. There are all those individual ethnic groups, but among those 55 peoples, the Han people will think of themselves as the mainstream people. How are each of the 50 or so nations distinguished from other nations? Why are there only 55? There may be more groups. The work to define them was done in the 1950s, and at that time, they described everything about them, such as certain ethnic groups had certain costumes, what foods they ate and what games they played. Looking at that,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perceive culture as fixed. We can understand this. by the way, even so, we can look at it critically. However, it is impossible to ignore the historical fact that we have lived with such notions, and that the current Korean and Japanese peoples were formed based on such notions.

So, it seems that Mr. Baek Nakcheon thought a lot about how to explain the history that forms the basis of the Korean people. Looking at the writings written by Mr. Baek Nak-cheon at that time, there is considerable continuity between the 'protonation' Eric Hobsbawm talked about, that is, such a pre-modern ethnic group that has no direct continuity with today's 'nation,' and this 'nation' that makes up today's Korea. And the national identity of today's Korean people is formed based on such an archetypal national self-imagining that such a protonational group constitutes itself. And such a protonational self-imagining has been established as the identity of the people constituting one nation, at least since Goryeo unified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has developed as a single nation since Goryeo, the archetypal self-imagining has gradually become established as the identity of the people constituting a nation. He's emphasizing this point. While, Eric Hobsbawm puts great emphasis on the lack of continuity between proto-ethnic groups, protonation, and present-day nations. he visited Korea in the early 1980s. At that time, he came to Korea and talked with many scholars, looked at Koreans. And later, in his book,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he mentioned as a footnote that at least Korea, Japan, and China are very homogeneous. He emphasized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nations.

And then, the ethnic concept of Koreans and other East Asians is very ethnic. In other words, a nation is based on a strong identity as a group that shares ancestry, culture, and language, especially those with whom they share ancestors. Because they have this kind of notion, they are the kind of people who have the notion of an ethnic nation. Compared to that, when you see people in France or the United States, very diverse people gather and form a country. So that the principle that constitutes a nation is ultimately based on sharing certain ideologies or philosophies, but there is no consciousness of sharing such a homogenous group, especially lineage. For this reason, such people as Franc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ny countries in Western Europe, who have the same national ideas, are distinguished from East Asian ethnic ideas and various nations in Eastern Europe, where similar tribal ethnic concepts are very strong groups. In making such a distinction between such Eastern European national ide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has led to a difference in political events and political systems tha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 are other scholars who say, emphasize this. There is a scholar named Hans Kohn who is very famou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and the book called 'The Idea of Nationalism' by Hans Kohn is very famous. He sees the concept of civil nation, civil nationalism, and the concept of tribal nation, tribal nationalism as contrasting. He developed a discourse that from Western European civil nationalism, such a liberal political system could have developed. Eastern Europe eventually developed into a totalitarian political system in the direction of Nazism due to ethnic nationalism in Eastern Europe. In this way a differentiation was made of the different political forms of politics from the two forms of nationalism. It was a book that came out in the 1940s, and since then it has been read by many people. And many people really ask why did totalitarianism arise in Eastern Europe? It is because their national concept itself has a very strong racial character. There may be people who apply it to East Asia as well. So why is Korea so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And why is Korea exclusive to foreigners? Why? I think we can talk like this because of racial and nationalistic notions. And you can see people actually saying that.

However, in recent years, the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forms of nationalism, the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oncept of 'nation' must be overcome. A lot of these academic theories are happening. Such introspection is taking place not only in Korea, but among scholars studying ethnicity and nation all over the worl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a nation that believes itself to have been created based on sharing such political and civil ideologies, in textbooks and children's textbooks, seeks its historical origin from the past, and then says who their ancestors are.

And based on that, such education emphasizing homogeneity was done a lot,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forming a modern nation in the 19th century. My younger brother lived in France, and he was surprised to see his son, who was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go to school and talk about it. When he saw his son say that his ancestors were Gauls, he was surprised thinking 'Why do Korean kids say things like this?' As it is, even in such a country, going back to the past, it is not that there is no exploration of things like 'who are our ancestors'. Conversely, aren't those people who believe that they share ancestry really do not share ancestry? It's just a myth. So, in a real sense, imagining a nation in really primordial terms is extremely, in fact, limited.

Believing that a nation is formed based on shared culture is actually true that all nations, including Western European nations, have formed a common homogeneity based on their culture. Ideology is also a culture, isn't it? Political culture is also a culture. isn't it? It has that kind of dichotomy, some of whom share a political ideology, and some of them believe that they share a lineage or culture. In that way, the two nations and the form of identity are divided in a dichotomy in that way, and in particular, throwing such a very negative view into the history of such a nation that is believed to have a strong tribal concept, is not desirable. These things are being pointed out today. If you look at this, take a look at these two pictures.

What can be seen left? It's our red devil. This is the image of people wearing red clothes and holding a Taegeukgi in the plaza in front of City Hall to support Korea when they play in the World Cup. what's the right one? On the right is the image of people cheering with the tricolor flag when France played soccer at the World Cup. By the way, are these two pictures showing the same phenomenon? Is it a different phenomenon? Isn't there a famous tennis player named Boris Becker during the 2006 World Cup? Looking at the passion that Boris Becker showed while cheering for the German national team on TV, patriotism is really desirable, but patriotism and nationalism are different.' This is what Baker said. I was quite sympathetic. Good word. But people, patriotism, like this, as I wrote under it, Patriotism generally has a positive connotation. Nationalism generally has a negative connotation whereas patriotism has such positive connotations. We're looking at it like this. In the meantime, is the cheering culture in Korea Nationalism and the cheering culture in France Patriotism? Can you really see it that way? In that respect, in fact, patriotism is also based on the very strong homogeneity, identity, and solidarity of a na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great. And while thinking about whether we should take a closer look at what kind of results they bring about when they are combined with some kind of historical and social phenomena, about how will we view our East Asian ethnic concept? And about anticipating how this will develop in the future we discuss it at the very end, in the very last week of this lecture. Therefore, today, I will stop by raising such a problem here.

Then, I'll wrap up with a brief summary of what we discussed in this first lecture today. First of all, did I not point out that the term citizenship has many different meanings an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ranslation? And that's why I said I'm going to translate citizenship into '시민권', and citizen into '국민' instead of '시민'. Then, we looked at the fact that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re both coincident and inconsistent in terms of personal scope. And we looked at what cases there were inconsistencies. People who did not enjoy full rights in a country in the past do not have citizenship. However, I told you that there are cases of inconsistency because they have nationality but do not have citizenship in that they are subject to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Then, we looked at the various meanings of 'nation' and the problem of translation. For that reason, I told you that I will simply denote nation as 'nation.' And I said that I would translate it into '민족' or '국민' as needed. And as three perspectives to look at the nation, primordialism, modernism, tribal and symbolic approaches. We looked at these three perspectives and briefly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sian nation concept. At the same time, for the notion of nation in Western Europe, the notion of nation in Eastern Europe, or the notion of nation in East Asia, as for whether we should dichotomize each other into civil and political nation concepts, as well as tribal and lineage nation concepts, although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of each other that we can talk about, such a dichotomy can be used in a way that creates prejudice against the history or culture of a particular country. In that respect, I introduced the recent academic trend to overcome such dichotomy. And I will end this lecture today by saying that I have such an idea to develop this lecture on the basis of overcoming the dichotomy.



# 讲义

## 什么是'市民权', 什么是'NATION'?

### 1-1

### 序言:韩国的市民权和'NATION'

大家好。我是负责“韩国市民权和Nation”课程的李喆雨。

在开始讲课之前,我简单地介绍一下这个讲座的整体宗旨是什么,目录是如何构成的。

这个讲座的题目是“韩国的市民权和Nation”。我决定讲座题目的时候,我先想了一下英文题目。

我想的英文题目是"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Korea"。Citizenship就是市民权,Nationhood是直接  
用"Nation"来表达,那么有些人会疑问前面的市民权直接用韩语,而为什么不把后面的"Nation"  
翻译成比较熟悉的"民族"或"国民",直接用英语单词Nation来表达呢?

关于这种用语的选择,待会儿再给大家说明吧。

在该讲座中,我主要讲的内容是:韩人、Korean, Korean是谁,大韩民国国民, Republic Of Korea的国民是谁?“组成韩人或韩民族或韩国民族是谁 还有使民族融为一体的原理是什么 以及成为大韩民国国民的条件是什么?等等 以回答这样的问题为宗旨。更具体地看一下,这个讲座将讨论以下的几个主题。

首先, 我们一起看一下《市民权和Nation》这个题目的意义是什么。

接下来是韩国人是谁? 这里所说的韩国人呢 有时候代表大韩民国国民, 在某些情况下,也可以代表生活在地球村各个角落的整个韩国人。那么, 有人可能会疑问, 在这些韩人或韩国人中 为什么有的是大韩民国国民,有的却不是大韩民国国民呢? 通过本讲座我想回答这些问题。

那么, 虽然是韩人, 但不是大韩民国国民的, 即, 拥有外国国籍的同胞在韩国有什么样的地位及权利呢? 这个问题也会成为这个讲座的内容。

现在的大韩民国国民是怎样成为大韩民国国民的呢? 还有, 现在还不是大韩民国国民的人, 怎样才能成为大韩民国国民呢? 有人出生就成为大韩民国国民, 有人刚开始是外国人,后来成为大韩民国国民。一出生就成为大韩民国国民的人根据什么原则可以这样, 后来成为大韩民国国民的人要具备什么条件才能成为大韩民国国民呢?

相反,作为大韩民国国民,也有可能会失去国民的地位。 那我们一起看一下在什么情况下会发生这种事情。大韩民国国民有什么权利和义务呢? 那些都写在宪法里。我们一起了解一下宪法赋予国民什么样的权利和义务。那么外国人宪法上没有任何权利吗? 不是。宪法还保护外国人的基本人权。 无论是国民还是外国人, 都可以受到国际人权法的保护。区分国民和外国人的最重要的制度, 那就是参政权。是指参与政治的权利。在大韩民国总统选举和国会议员选举中,本国进行投票。但外国人不是不能投票吗? 不过, 已经很多大韩民国国民到国外生活。其中有很多人在国外拥有永久居住权, 很长时间居留在那个国家。这样的国民也可以拥有同样的参政权吗?

相反,我在前面说区分国民和外国人的主要标准是参政权,不过在韩国也有很多外国工人,他们韩语说得很好,而且很了解韩国文化,也有很多韩国朋友。最近在韩国这样的外国人逐渐增加。如果那些人仅仅因为是外国人而不能参与任何决策,那岂不是不公平吗?那么,国家应该给予外国人多少参与决策的权利,在韩国是如何做的,让我们讨论一下这些问题。

接下来有些人既有大韩民国的国籍,也有外国国籍的人。那么这些人应该怎么待遇呢?这叫‘双重国籍’。最近在法律上不使用‘双重国籍’,而是说‘多重国籍’。就是拥有多个国籍的意思。有这样拥有两个以上国籍的人,也有没有任何国籍的人。韩国也有这样的人吗?有。那些人到底有什么原因没有国籍呢?还有那些人应该受到什么样的保护呢?

最后,未来韩国的成员将可以享受怎样的权利呢?不仅是韩国国民,在韩国生活的外国人的地位和权利又会如何呢?还有把韩国人变成韩国人的原理是什么呢?和现在不一样吗?我们这样想象一下未来就结束这个讲座。

那么,我们开始第一周的讲座吧。

### 什么是‘市民权’，什么是‘NATION’?

#### 1-2

#### 什么是市民权 ( citizenship ) ?

今天我们要来看一下‘市民权’和‘Nation’意味着什么。

如前所说，市民权是英语citizenship的翻译词。英语中的citizen一词来自哪里？诺曼语中有citesein这个词。它看起来法语单词中意为城市的cite后面加上德语单词 sein。看起来是拉丁语和日耳曼语的混合体。在法语里citizen叫citoyen。据说这个词来源于citeien这个古语。从相当于citizen的希腊和罗马的用语来看，它意味着一个政治共同体，这样一个政治组织的共同体，最具代表性的就是‘国家’。

在希腊语和罗马语中有指作为国家 或组织化的政治共同体的成员享受政治权利的人的单词。

在希腊有政治共同体或国家,即police或希腊语中被称为politeia的 那些组织体的成员,他们被称为politēs。

在罗马用语中相当于希腊语的police或politeia的 是civitas,据说, 这‘civitas’的成员被称为‘civis’。

所以civis Rmānus就是罗马的citizen的意思。

那么大家你们在哪里第一次听到“citizenship”这个词呢？屏幕上看到的这张照片是10年前我去菲律宾时使用的入境卡。据我所知，之后这张卡的格式有所改变。大家一起看一下citizenship这个词。

这里写着要填写citizenship或nationality。我们在那里该写什么呢？就是国籍。

所以我在那里写过“Korean”，也写过“Republic Of Korea”。换句话说，“citizenship”这个词和具有“国籍”含义的nationality是同义词。刚才看的那张卡片上并列写着citizenship和nationality。

在法国，国籍被称为nationalité。在德国，使用Staatsangehörigkeit这样的用语。德语“Staatsangehörigkeit”是隶属国家的意思，所以准确来说相当于韩语的“国籍”。在奥地利，用Staatsbürgerschaft这个用语来代表国籍的意思，bürger是居住在城市的人，就是市民的意思，

意为‘国籍’的Staatsbürgerschaft还具有‘国家市民权’的意思。



虽然citizenship经常与国籍同义词使用，但citizenship的人际界限是否与国籍一致？也有不那样的国家。有些国家在宪法和法律上区分citizenship和nationality，即区分‘市民权’和‘国籍’。美国就是这样。虽然在美国出生并成为美利坚合众国国籍的人，但并不是citizen的人，美国法律上“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这些法律规定了这样一类人。这些人是谁呢？海外占领地，即美属萨摩亚，太平洋岛屿萨摩亚，还有叫做斯温斯岛的太平洋岛屿，出生在那种海外占领地的人，他们出生在美利坚合众国50个州中一个州，这些人与成为citizen的人不同，他们在美国没有投票权。

因为他们不是‘citizen’，只是‘national’而已。他们不是美国的那种市民，只能说是只有国籍的国籍者。

有一个法国哲学家叫狄德罗。法国哲学家狄德罗对citizen，即法语的‘citoyen’说了以下话。

‘citoyen’是由多个家庭组成的自由社会的成员，是享受该社会权利的人。女性、儿童、仆人从严格意义上来说，只是被赋予了市民的家庭成员的地位，而不是真正的市民。他这么说过。

墨西哥宪法也很有趣。从墨西哥宪法第30条来看，墨西哥国籍是，nationality是通过出生或入籍获得的，不过，从第34条来看，拥有墨西哥国籍的人中，成年后过着健康的生活的话，那个人可以成为共和国的citizen，市民。非常有意思。因为这里的国籍和市民权分为30条和34条，分别规定。

这样看来，我们可以知道citizenship意味着在拥有国籍的人当中，具有该国最完整的权利，尤其是参与国政的权利的地位。而且，有时还意味着那些人拥有的权利和义务的整个‘包裹’，意味着“包裹”。这样，作为国家的成员，享有完全权利的人所拥有的citizenship，市民权是指国家所属的国内方面，不过，在国际方面来看，citizenship与国籍有所区别，虽然在概念上有所区别，但，假如国内方面和国际方面的范围一致的话，那么citizenship和nationality最终将处于同一范围。市民权和国籍的范围是一致的。

但, 实际上也会出现不一致的情况。我们在前面已经看到了美利坚合众国的事例。我们已经看过有些人不是美利坚合众国的"citizen", 而是国籍者而已。这样, 也可以看到不一致的情况。另一方面, 当将 citizenship 称为权利的"包裹"时, 其中包含的内容、权利的内容以及权利的范围正在不断扩大。

1949年, 一位T.H.Marshall的英国政治哲学家曾在剑桥大学 进行过名为"citizenship and social class"的演讲, 该演讲稿至今仍以经典形式脍炙人口。这里的T.H.Marshall指出, 市民权, 即 citizenship 的内容是 civil rights, 即市民权利, 换句我们更熟悉的话说, 是自由权, 从自由权逐渐扩展到政治权, 包括社会权, 其内容以这种方式不断扩大。在那里只提到了自由权、政治权、参政权和社会权, 但仔细分析的话, 也有经济权。而且有文化权, 还有在好环境生活的权利、环境权等, 我们可以知道以这种方式持续扩大 citizenship、市民权的内容和范围。

另一方面, citizenship, 市民权也有另一种意义。它还意味着我们参与共同体时, 能参与多少, 还有在这个共同体内, 我们作为成员, 得到多少认可等。当某些特定地区的居民受到歧视时, 我们还会把这些人称为"二等市民"。那些受到歧视的人偶尔还自嘲地说"难道我们是二等市民吗?"。

另外, 在有些国家虽然两个人同样为国家做出了贡献 但与从一开始就是国民的人受到不同的待遇时, 他们可以认为自己被当作二等市民对待。实际上我也经常听到这样的话。不只是在韩国, 全世界都有入籍的人不能成为总统等规定, 从这一点来看 这些人从出生开始就比一般国民受到歧视 因此, 有时会说"我们是二等市民"。

那么,如果说某种参与程度或得到认可的程度的话 不是由我们来区分他们是外国人还是国民,有些外国人受到不亚于国民的待遇,反而,在某些国家外国人甚至受到更好的待遇。比如投资很多的外国人。那么,如果是这样的话,可以说那种外国人也拥有citizenship吗?一般来说,如果是这样的话,可以问外国人是否也拥有citizenship吗?就是会出现这样的问题。如果我们拿citizenship这一个词来说明 权利的包裹和参与程度的话,还可以说外国人也拥有citizenship。

我看过有一位学者写的文章, 题目是《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Korea》。其中包含着外国劳动者也可以和国民一样享受权利的内容。但是,我个人认为,如果citizenship这个词不一定是只适用于国民的用语,而是以外国人也可以拥有的含义使用的话,虽然看起来那是很理想的目标但是实际上国民和外国人不是在权利方面存在很大差异吗?无论如何,citizenship还是应该看作是国民享有的地位。

另外,citizenship这一词还指人们在共同体中生活的态度、好好儿遵守秩序、给别人让步等这种优秀市民的态度。所以有时候会说,“要成为优秀的市民, 要拥有优秀的citizenship。”在这种情况下,比起‘市民权’,将‘citizenship’一词翻译成‘市民性’更好。

从这个意义上讲,我也曾见过韩国的政治学家们 将citizenship这一词用表达为市民性。

那么我们整理一下到目前为止使用的用语吧。首先, 我将把‘citizenship’直接翻译成市民权吧。还有作为政治共同体的成员享受的权利和义务的包裹,以此来定义citizenship。说到政治共同体,最具代表性的是“国家”。作为国家的成员,享受的权利和义务的包裹最终是市民权,在这种前提下进行这个讲座吧。

### 什么是‘市民权’，什么是‘NATION’?

#### 1-3 市民、国民、公民、人民

刚才我说过在韩国一般把citizen翻译成市民,把citizenship翻译成市民权,我也要把citizenship翻译成市民权。还有,代替市民权,使用市民性一词 来表达优秀、健康的市民态度。

但是我有时候很烦恼, 把citizen翻译成市民, 把citizenship翻译成市民权, 这真的是好的翻译吗?

有个朋友给我讲过一个有趣的经验。那个人去了某个外国, 要下飞机的时候, 让他在入境卡上填写citizenship, 是我们刚才看到的相似的那种卡吧? 让他在那里写citizenship 当时他不知道citizenship是什么意思。所以他在那里记载了“首尔”。因为city是指城市。还有看citizen这个词的由来 就像我们刚才看到的一样, 也有城市的意思的“cite”, 所以那句话也是有道理的。但是呢,亚洲的一些国家将citizen称为国民, 也将citizenship称为国民权。

例如, 在中国使用‘中华人民共和国国民’这样的话 还有, 在朝鲜(北韩)把朝鲜的国民称为‘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民’。这就是那些国家的法律用语。法律上有这样的话。据说, 过去在韩国也使用过“公民”这一词。现在提起公民的话, 听起来有点陌生, 不过, 解放后 还有1950年代还经常使用公民一词。

这幅画叫‘公民课本’,其中强调了作为共同体成员的 正确态度和作为好市民的态度。

当时, “公民”一词被广泛使用, 甚至课本上也有“公民”这一科目。也就是说,在韩国过去也经常使用“公民”这一词来表达“citizen”的意思。但是不知从什么时候开始, 在韩国‘公民’这个词几乎不使用了。

在法令中还很少看到“公民权” 但, 现在不怎么使用‘公民’这个词。

现在以‘国民’来代替‘公民’。因此,“国民”被通用为具有权利和义务的国家的成员。政治家们经常使用国民这个词,比如“国家时时刻刻和国民在一起。” 韩国有一个叫“国民的力量”的政党。但是这个“国民的力量”政党的英文名字是什么呢, 就是“The People Power Party”。在这里就是把国民翻译成“The People”但是The People这个词是世界各国宪法中经常出现的用语。在美利坚合众国宪法中也出现了“The People”一词。说到The People,我认为它通常更适合“人民”这个翻译词。但是人民这个用语, 对我们来说不太熟悉。最近在韩国很少使用“人民”这个词。据说, 在1948年起草近代宪法的过程中, 实际上曾使用过“人民”一词, 而不是“国民”。

刘镇午先生制定的大韩民国宪法第一草稿, 还有刘镇五先生制定的那种方案为中心 向司法部提交的宪法草案中出现了“朝鲜人民”的说法。并且出现了国家主权在人民, 一切权力在人民手中的条款。但是因为“人民”是共产主义者使用的用语,所以被排斥了。 因此, 1948年最终通过的大韩民国宪法采纳了“国民”一词, 而不是“人民”。1948年当时的宪法第2条,等于现在宪法中规定的第1条第2项, 其中记载着“大韩民国的主权在于国民,所有权力都来自国民。”

总之, 本讲座将citizenship直接翻译成“市民权”一词使用, 其实,citizen用“公民”一词比较好, 但现在这个词有些陌生了 而且目前学者们经常使用“市民”。意思是居住在城市的人。虽然“市民”的由来是生活在城市的人的意思, 但现在比起城市这一脉络,更倾向于全体国家的成员的意思, 所以我以后要使用我们更熟悉的“国民”这一词。总之, 我在本讲座上将citizenship翻译成市民权,把citizen翻译成国民来表达吧。



### 什么是‘市民权’，什么是‘NATION’?

#### 1-4 "NATION"意味着什么？

接下来，我们看看这个讲座题目中出现的第二个概念nation的意义吧。

已知‘nation’来源于拉丁语单词‘natio’。这是什么意思呢？耶稣诞生的事实，我们纪念耶稣诞生的事实，并把它叫做‘nativity’。“natio,nativity”包含着‘出生’的意义。也就是说,最终natio是同血统的集团,出生为某个集团,从妈妈肚子里出来,出生后进入这个集团的意思。因此,最终natio意味着同一个血统的集团。原来nation的由来natio就是这个意思。

我在前面已经说过在希腊语和罗马语中几个意味着政治共同体的用语。在希腊和罗马。在罗马，使用civitas一词，意为政治共同体。再说，与代表政治共同体的civitas区分开来，natio被用作代表同族群体的用语。

另外,拉丁语natio相当于希腊语的ethnos。这个ethnos在希腊语带着共享血统的集团的意思。这是希腊语中意为政治共同体的用语，我们通常经常说politeia、polis，其中就有politeia。这是与拉丁语的civitas意思相通的用语。与意味着政治共同体的politeia有区别的单词ethnos,这意味着共享血统的集团。拉丁语natio和希腊语ethnos是相通的用语 可以说，当时在古代国家拉丁语natio和希腊语ethnos被使用为同样的意思。

像这样,相当于nation的过去用语作为共享血统的集团而通用,中世纪英语中nacioun的意思等于nation。直到那时, nacioun这个用语里面仍然包含着同血统的集团的意思,但是随着接近近代, nation的含义从血统中分离出来 逐渐变成政治社会集团、政治社会的成员们的全体集团的意义。后来到了法国革命时期, nation、法语的“nacioun”成为了指市民集团的用语。因此,法国革命爆发后,“citoyen”,即宣布了法国市民的权利。那是为人类与市民的权利宣言,目前我们把当时的“citoyen”翻译成“市民”,就像刚才我说的那样,在这个讲座上我会把它称为“国民”。因此,最终“nacioun”在法国革命时期被用作市民集团,即国民集团的用语。

另一方面, nation现在也被用作“国家”的意义。最具代表性的是United Nations, UN。UN是什么呢?不就是国家聚在一起成立的那种组织吗?联合国(UN)的成员是谁呢?那就是国家。所以说United Nations,就是国家联合的意思 那么严格来说,应该是United States才对的。因为是国家聚在一起制作的。但是,也许是因为美利坚合众国已经将这一用语作为国家名称,在创立“UN”时,用United Nations命名了该组织。

还有“international”这个词嘛。international是修饰国家与国家之间关系的形容词。也就是说,国家之间的关系,当时“national”这个词被用作国家的意思。所以说, international这个词和interstate是同一个意思。

像这样,“nation”这一词从共享血统的集团的意思开始,最近也被用作“国家”的意思。与此对应,代表国籍的用语“nationality”,法语是“nationalité”就来源于“nation”。因此,如果追究“nation”和“Nationality”这个用语所具有的某种由来的话,那么相互之间有着非常密切的相关性。就是说,目前“Nationality”被用作“国籍”意思的用语,它都基于“nation”被用作“国家”的那种语法。可以这么说。

由此可见,nation被用于多种含义, 翻译起来非常困难。首先,正如前面所说,“nation”是以共享血统的集团的意思开始的。而且仍然也可以从那个角度看待nation。不仅是共享血统、还共享文化的集团、即, 共享血统和文化的那种集团 仍然都可以使用“nation”来表达。用韩语来说,“民族”这一词就对应“nation”。

用与韩语同一个汉字,用中文说“民族”,不知道我的中文发音对不对 日语叫“minzoku”也是一个汉字。发音为“minzoku”的那个汉字,韩语叫“民族”的用语 这个用语蕴含的意思就是“nation”,作为一个共享血统和文化的集团, 如果将“nation”这个词用作共享血统和文化的集团的话, “民族”是与这个用语非常相通的概念。

刚才说的韩语中的“民族”, 还有中文、日语中用同一个汉字的那个用语 那个用语的概念与“ethnic group”非常相同。在韩国把它翻译成“种族”。民族和种族这两个用语是很多含义相通的概念 两种概念都在被使用, 可以说这是与 作为共享血统的集团的nation非常相通的概念。

在韩国, 我们把“race”翻译成“人种”, 刚才说的“种族”当然与这个“人种”不一样。在这里说的“人种”是反映了生物学属性的概念。还有“ethnie”、“ethnic group”概念的“种族”与“人种”略有不同, 是以血统和文化为中心构成的那种集团的用语 因此, 我们经常会看到 “种族”这一词的概念与“民族”互换使用的情况。

但是另一方面,正如前面所说,nation被用作共享血统和文化的集团, 但另一方面也被用作构成政治共同体的集团。最终“nation”翻译成意味着那个国民集团的意思。而且最近,特别是也有需要把这个用语翻译成“国家”的时候。

像这样,nation这个词很难翻译。因此,看翻译例子的话,有些复杂,Nationalism,就是以nation为基础的Nationalism概念 在韩国,有时可以翻译成民族主义,有时也可以翻译成国民主义。并且在某些情况下,还加上国家主义这样的解释。

另一方面,有一个概念叫做“nation-state”,这个概念在我们的社会科学方面被大量使用。这个概念有时译为民族国家,有时译为国民国家。所以很混乱。因为nation既意味着血统和文化的共同集团,又意味着构成政治共同体、国家的集团,所以德国人为了明确地区分这两个方面,在nation的前面加上单词,想要明确表达nation带着什么意义。所以Staatsnation,即国家nation、Kulturnation、文化nation、Volksnation,通过使用包含文化和血统的民族性nation一词,努力更加明确使用 复杂多样含义的nation一词的意义。我认为这些用语的使用也对理解很有帮助。

前面我们看过Nationality是代表国籍的用语,而且因为nation是国家的意思 Nationality被用作代表其所属国家地位,即国籍的用语。但是像nation一样,其实,仔细分析的话 这个Nationality也有两种含义。因为这两种在法律上也有不同的含义 所以会产生很多混乱。

《难民公约》就是一个典型的例子. 从《难民公约》第1条来看,有定义难民的条款。难民是什么样的人呢? 难民就是以承认可以会受到迫害的 有充分根据的恐怖为由避难的人。不过, 他们因为什么原因受到迫害呢? 下面有迫害的5个根据。种族迫害, race, 种族迫害。religion, 宗教迫害, 还有“Nationality”迫害。除此之外, 还有因隶属于特定社会集团而受到迫害的情况。另外,还有政治见解, 就是会成为政治犯。因政治见解而造成的迫害。有这些5种迫害理由, 在这里以Nationality为理由的迫害, 这里的Nationality是什么呢? 仔细分析的话, 也有可能包括国籍。没有国籍的人, 比如说在罗马有个叫吉普赛的团体, 他们是在东欧地区到处流浪的那种民族, 在任何国家吉普赛的国籍都不明确。他们中也有可以拥有国籍而不拥有国籍的情况。这样的人有时会受到镇压, 这也是根据国籍的镇压。但是比起这些,把他们看作是因为他们属于一个特定的民族群体 而受到迫害更能反映事实。

像这样, Nationality更多地用于表示国籍, 而且对我们更熟悉的概念, 从《难民公约》第1条中对难民的定义来看, Nationality当然包括国籍, 不过, 《难民公约》第1条中记载了 该用语是指属于特定民族集团进行迫害的情况。

例如, 过去巴尔干半岛发生了民族纠纷。占多数的民族迫害其他民族。南斯拉夫分裂成多个国家时 过去的塞尔维亚人去克罗地亚生活, 克罗地亚人也去塞尔维亚生活。还有, 波斯尼亚和黑塞哥维那内部也有塞尔维亚人居住,在这种情况下 民族之间发生了很大的纠纷,从而不是发生了很多屠杀吗? 那时, 在某个地区或国家占多数的民族迫害另一个民族, 为了躲避迫害, 经常发生避身的情况。从这个意义上讲, Nationality被用作这种属于民族的用语。



但是这个条文中第二次出现的Nationality不是那个意思。这里的Nationality意味着国籍。再说，应该撤离到自己的国籍国外，才能成为难民。同样，第三个Nationality也是指国籍。在这里指的是无国籍的人。这里所说的无国籍的人是指已经从居住国逃离出来的人，所以第二次和第三次出现的Nationality意味着国籍。第一个出来的Nationality也有国籍的意思，但比起这个，它更被用作意味着属于特定民族集团的地位的用语。像这样,Nationality这个词在同一条文中出现3次以上,而其意义有所不同。

因为nation这个用语有这么多含义，所以很难翻译，Nationality最终也是源自nation，所以基本上被用作国籍的意思，但在某种情况下，还能被用作意味着属于特定民族集团的地位。

总之，在这节课上，nation的含义不止一种，所以我就直接用nation来表达吧。还有根据情况,如果这个用语表示共享血统和文化的群体的话，我们会将其翻译成民族 然后使用这样的用语，当被用作某个国家所属国家的成员地位、构成国家成员的集团的用语时，我们也会用国民这个词来表达其意义。但是nation具有那么复杂的意义，所以就在这里直接用nation来表达吧。

### 什么是‘市民权’，什么是‘NATION’?

#### 1-5

#### 看待“NATION”的三种观点

刚才我们看了nation这个用语具有这么多种含义。nation这个用语的用法很多样，其中根据强调哪个方面学者们看待nation的观点不同。所以看待nation的观点有很多种。我用三种方法区分了这些观点,第一个是原始主义的观点。可以说是primordialism, 我举个例子，在韩国，人们说话的时候能感受到这一观点，韩人，Korean。韩国人常常说我们是檀君的后代。Korean是檀君的后代。韩国人相信我们是4000年前的神话人物檀君的后代。可以说这就是原始主义的代表性例子。再说，nation，也可以说是民族，这只是理所当然的，不言自明的。从出生开始就进入那个集团,无法摆脱那个集团,而且那个集团真的相信共享某种血统，这种立场可以说是原始主义的立场。

在历史学界，也有一些学者站在原始主义的立场上接近nation。最代表的人物就是丹斋申采浩先生吧。丹斋申采浩先生在《朝鲜上古史》一书中讲述了 檀君朝鲜、扶余、高句丽等古代民族集团是我们的直系祖先。他在书中还说“历史是‘我’和‘非我’，即我们和他们的斗争”，还有我们这些人，就是我们民族是自古以来一直延续下来的人。他在书中表现出了这种信任。在我看来，这不是他特有的思维方式，而是大部分韩国人都有着这种思维方式。

第二个观点可以说是近代主义的观点。可以说这是modernist的观点,站在这个立场的人说nation没有“肚脐”。这是什么意思? 没有肚脐? 这是什么意思? 这句话的意思是说, nation与促使其诞生的先行集团 没有特别的关系。他们还强调从历史上看,即使追究nation的集团基础和背景,从过去到过去,再从过去到古代,某个特定集团和现在的nation之间也并不一定存在特别的连续性。也就是说,这种立场叫近代主义的观点,从这个立场上看来, nation是近代的产物,前近代存在的种族集团、ethnic集团、和这种共享血统和文化的集团没有连续性,这就是近代主义的观点。

19世纪有一位学者叫欧内斯特·勒南。这位学者出版了一本书,叫《nation是什么? (What is a nation?)》。在那本书中,这个人说:"一个nation的存在是,这是用法语写的书,所以citoyen,一个citoyen的存在就是日益进行的国民投票。“这是什么意思呢, nation不是从以前开始一贯延续下来的单一集团 或nation所属,而是说nation所属是人们在具体情况下选择的意思。因此,在强调人们的选择性这一点上,欧内斯特·勒南是具有近代主义nation观点的学者,是19世纪的著名学者。

还有一位著名的学者叫欧内斯特·盖尔纳。他就是说过“nation没有肚脐”的那个人。欧内斯特·盖尔纳在这样说的同时,举了爱沙尼亚的例子。爱沙尼亚是位于波罗的海沿岸的国家,脱离苏联邦独立的国家。爱沙尼亚过去是苏联邦的共和国之一,但进入90年代后从苏联邦独立出来。爱沙尼亚使用的语言被称为皮诺-乌格里亚语,与欧洲其他邻近国家的语言非常不同。因此,他们被认为是具有与其他民族非常区别的特性的民族,但是欧内斯特·盖尔纳却提出了令人震惊的主张。爱沙尼亚的nation自古以来没有那么明显的界限,也不是自我意识强烈的集团,进入20世纪后突然通过某种努力而形成的。

进入20世纪后,他们建造博物馆、收集文物,从而重新组成了一种nation。这是非常令人震惊的主张。反正,欧内斯特·盖尔纳提出了这样的主张,之后他还出版了一本著名的书《Nations and Nationalism》。

具有近代主义观点的学者当中，还有一位著名的学者 就是艾瑞克·霍布斯鲍姆，是一位著名的马克思主义历史学家。艾瑞克·霍布斯鲍姆写的书名是《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即1780年以后的民族和民族主义，因此很容易与盖尔纳的书名混淆。盖尔纳的书名是Nations and Nationalism，霍布斯鲍姆的书名后面还加“since 1780”，所以很容易混淆，不过，盖尔纳和霍布斯鲍姆确实有着相通的观点。霍布斯鲍姆将前近代的民族称为‘Protonation’，在前近代也有类似nation的集团。把它叫做Protonation，我在韩国的学术界 看到过将其翻译成‘原民族’。

但是这个Protonation，前近代Protonation的集团 和近代nation之间没有连续性。近代的nation强调由于近代的各种社会变化，比如资本主义的发展 立足于这种社会变化而新成立的集团。从这个角度来看，可以说他是具有代表性的近代主义观点的学者。

还有一个代表近代主义观点的另一个著名学者 尤其是近年来经常被提及的人，名字叫本尼迪克·安德森。在本尼迪克·安德森的著作中，最有名的是《想象的共同体》，《magined Communities》。nation是想象的共同体 最近不是经常听到这样的话吗？也就是说，nation是不言而喻的，人出生后不是直接隶属于其集团，不是从过去一直延续下来的、具有连续性的那种集团 而是在某个阶段、某个历史阶段组成的那种集团，安德森强调这一点。

还有安德森非常强调印刷术的发展对nation的形成产生了很大的影响。随着印刷技术的发展,生活在远距离的人们可以相互沟通,从而可以形成了共同的认同感。他强调说,过去没有印刷术的时候,人们在局部共同体中生活得很狭窄,但随着印刷术的发展,出现了近代国家的共同体。他强调这一点。以上我们了解了一下近代主义观点

标榜近代主义观点的学者们大致以资本主义的发展、近代政治体系的发展以及近代国家的形成为基础,通过这些历史事实和背景,解释了形成 nation 的基础是什么。那么接下来第三个观点是种族和象征性的接近 这种观点被称为ethno-symbolic approach,从这个观点来看,nation有肚脐。

刚才包括欧内斯特·盖尔纳,近代主义者们 不是说过nation没有肚脐吗?但是持着这个观点的人却强调nation有肚脐。换句话说,他们注意到nation的种族背景和ethnic背景。

他们认为血统、语言、文化等这些因素共同存在的集团 构成了nation的基础。从他们的观点来看,比起政治系统、政治哲学、理念,共享血统、语言、文化更重要,以共享为基础形成认同感的集团才是nation。

刚才“nation”一词的拉丁语由来,即古罗马使用的“natio”一词中 包含着共享血统的集团的意思 我已经说明了它与希腊语“ethnos”几乎具有同样的意义。后来,到了近代,近代的‘nation’呢 比起共享血统、语言和文化的集团 nation更具有构成国家的集团、国民集团的意义。近年来,这个用语具有与国家同样含义而通用,与此相比,希腊语的ethnos并没有以这种方式转换,至今仍作为以某种血统为基础的集团而通用。所以刚才所说的ethnie或者ethnic group就是指这个意思。不仅是血统,语言也一起使用,还可以看到ethnic这个词被用作文化上具有同质的群体。就是经常沉醉于这种种族和象征性的接近的学者们 强调这些ethnic的要素构成了nation的基础。



其代表性的学者就是安东尼·D·史密斯。 安东尼·D·史密斯留下了非常多的著作, 其中最具代表性的就是 nation 的种族起源, 英文名是《The Ethnic Origins of Nations》。在书上, 安东尼·D·史密斯说: “当今的 nation 有肚脐。” 再说, 有一个先行集团孕育出了它, 其先行集团就是‘ethnie’。那么, 看看ethnie的要素, 即种族群体的要素的话, 拥有同一个群体的称呼, 也有对同一个血统的信任。这并不意味着真的共享了血统, 而对同一个血统有信任的意思 并且, 拥有共享的历史, 还具有与其他文化区别的共享文化, 与特定场所有着关联性, 比如说‘白头山(长白山)’, 这种关联性。而且以彼此之间强烈的纽带感、连带感等为基础定义的集团 以这种ethnic的集团为基础形成了今天的nation 而不是因为近代的历史变动、社会变动而突然出现的。安东尼·D·史密斯就是强调了这一点。

另外, 又被称为属于这种种族和象征性接近的学者沃克康纳, 康纳留下了一本著作, 名为《Ethnonationalism》, 种族的nationalism。这里说的nation是最终以血统相同的信念形成的集团。刚才说那个安东尼·D·史密斯是以ethnic的几个要素为基础产生的集团 康纳尤其强调了其中以同血统的信念形成的集团这一点。因此, Connor强调, 所有nationalism都是Ethnonationalism。近年来, 一位以色列的学者, 名叫阿扎·加特, 他留下了拥护种族和象征性接近的著作, 其题目本身就是《nations》。再说, 题目就是民族, 我在前边跟大家说要把‘nation’直接翻译成‘nation’, 但是现在却说“民族”是因为在这本书上非常强调这一点。

也就是说,nation与以亲密感、认同感、连带感组成的政治共同体,还有文化和亲属感情、血统共享的意思相同。被定义为亲属感情的韩民族、一个人类集团和一个国家联合在一起的 处于这种状态的集团就是 nation。所以说, nation虽然是构成政治共同体或国家的那种集团 但其集团的基础是以亲属感情、共享血统的信念、共享文化的信念、还有亲密感、同质性、连带感等为基础,从这一点来看 他非常拥护与安东尼·D·史密斯的nation相通的概念。

采取种族和象征性接近方法的学者们对Nation-state的观点也提出了有些独特的主张。我们一般可以把 Nation-state翻译成民族国家,也可以翻译成国民国家,根据强调Nation的哪些方面,翻译的结果也会有所不同,所以这也是很难翻译的单词。但是我们一般都会说所有的近代国家都是Nation-state。不过,采取种族和象征性接近方法的学者们,尤其是安东尼·D·史密斯和沃克康纳等这些学者们 讲述了要区分Nation-state和National state这一点。目前,大部分国家都是national state。所以说,只有一个nation构成一个国家的 那种情况下,我们才能称之为Nation-state,很多nation构成一个国家的那种情况应该称为national state。例如,波兰人认为自己的民族是 共享一个同质的,就是一个ethnic的种族背景的同质群体,并且他们是自己的民族与其他群体有区别的那种意识非常强的民族。因此波兰可以说是Nation-state,但是,法国是很多不同种族聚集在一起 形成的国家,所以法国不能称之为Nation-state,应该说是National state。以这种方法区分概念。韩国的情况如何?

如果按照这个观点的话, 韩国当然可以成为Nation-state的一个很好的例子。但是,采取这种种族、象征性接近方法的人和 站在原始主义立场的人经常被混淆。但实际上这两者应该相互区分。就是说, 从原始主义, 刚才说的那个primordialism. 从采取原始主义的那种观点来看, 这是那些真正相信一个群体 真的拥有共同祖先的观点。韩国人是檀君的后代。去朝鲜(北韩)的话, 那里不是有檀君墓嘛。檀君是真实存在的人物, 现在生活在朝鲜的居民们是檀君的后代 他们真的拥有这样的信念。基于这种信念, 发现了檀君的遗骸, 然后建造了檀君墓。再说, 很多人有着这样的观点。

所以nation是持有这种观点的人创建的团体 站在第三者的立场上看待这一点是种族和象征性的接近方法, 从这一点来看, 原始主义, 那就是真正拥有这种观点, 这种信任的人的观点, 种族性、象征性的接近是拥有这种信任的人很多 以这种信任为基础形成了nation。这是从第三者的角度进行研究的  
那种观点, 因此有必要区分原始主义和种族性、象征性的接近。这个原始主义与其说是学术上的见解, 不如说是人们普遍持有的那种观点 从而我们可以有所不同地看待, 我们还可以 以看待nation的学术方面的观点进行比较近代主义观点和种族、象征性的接近, 我们可以通过一个争论确认两种观点形成了鲜明的对比。那就是在1996年安东尼·D·史密斯和欧内斯特·盖尔纳进行了争论, 华威大学, 在英国的华威大学进行了争论, 我们称之为华威争论 代表近代主义的欧内斯特·盖尔纳是 代表种族、象征性的接近的安东尼·D·史密斯的老师。这是老师和学生之间的争论,这个争论 出现在这个领域的著名杂志《Nations and Nationalism》上 如果你阅读该杂志,就能很好地理解这两种观点以何种方式区分。

### 什么是‘市民权’，什么是‘NATION’?

#### 1-6

#### 东亚和韩国的民族观念

到现在为止我介绍了看待nation的几个观点，nation的概念本身就是西方的概念，而且看待nation的观点也是以西方史为基础形成的观点。因此，我不禁怀疑用这些概念能否很好地解释我们东亚民族的观点。

东亚人的nation观念有什么特点呢？首先，关于古代史我们东亚国家之间的争论非常激烈。在日本和韩国之间，以任那日本府说为中心，对历史的解释非常激烈。还有，在中国和韩国之间，因为所谓的东北工程那不是已经演变为国家之间的矛盾了吗？因此，围绕过去高句丽的领土情况如何、古朝鲜究竟是什么样的、将其编入中国史还是韩国史，围绕这些问题存在很多矛盾。由此可见，东亚三国，所谓共同使用‘民族’的汉字的这东亚三国否具有相当原始主义的民族观念呢？这不禁让人产生疑问。

还可以看出的一点是将文化视为一种非常固定的概念的一面。比如，韩国人穿什么样的服饰，吃什么样的食物等 我认为其中不少人倾向于将这种具有代表性的面貌 规定为本质性的。

这种倾向在中国民族识别认定工作中表现得很突出 20世纪50年代, 中国进行了规定 中国少数民族文化是什么的工作。在中国有一个民族, 叫中华民族, 在这个民族内部由56个民族组成。中国人解释说有组成民族。包含这些的中华民族也是民族, 也有组成民族的朝鲜族, 还有满族、白族等等。有这些个别的民族, 在那55个民族中, 汉族会自己认为是主流民族, 所以50多个民族各自与其他民族用什么方式区分呢? 还有为什么只有55个呢? 不是会有更多的群体吗? 规定这些的工作是在50年代进行的, 当时哪些民族在穿什么服饰, 吃什么食物, 玩什么游戏等, 把这些内容都定好了。从这一点来看, 他们非常倾向于认为文化是固定的。这点我可以理解, 但是呢, 我们可以批判性地看待这一点, 但另一方面, 也不能忽视我们以这种观念一直活到现在、以这种观念为基础构成了韩民族或者日本民族等 这些民族的这个事实, 这样的历史事实。

看来, 白乐天先生非常苦恼将构成韩民族基础的历史 用什么方法来解释, 从白乐天先生当时写的文章来看 艾瑞克·霍布斯鲍姆所说的protonation, 即与今天的nation没有直接连续性的 那种前近代民族集团, protonation和 构成今天的韩国的nation之间有着相当大的连续性。而且, 以这个protonational的集团自己构成的那些 圆形民族自我想象为基础, 形成了今天韩民族的national identity, 就是民族认同感。而且这种protonational的自我想象至少在高丽统一了三国, 再统一了后三国, 从高丽时代以来, 韩半岛作为一个单一的国家展开了历史 因此圆形民族的自我想象逐渐确立了构成一个国家的人的认同感。就是强调这一点。另外, 艾瑞克·霍布斯鲍姆非常强调圆形民族集团, protonation和今天的nation之间没有连续性, 这位在1980年代初期访问了韩国。当时来到韩国, 与很多学者交谈 观察了韩国人以后出版的《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一书中即使是脚注, 也提到了韩国、日本和中国具有很强的同质性。强调了东亚nation的一个特征。



那么，韩国和其他东亚人的民族观念就具有很强的ethnic。即作为共享血统、文化和语言的团体具有强烈的认同感，尤其是他们认为民族拥有同一个祖先，因为他们具有这种观念，所以可以说他们是具有ethnic nation 观念的人。与此相比，如果看法国或美利坚合众国的人 就会发现各种各样的人聚在一起组成国家，因此组成国家的原理，对于这些人来说，组成nation的原理最终都是以共享理念、共享哲学等为基础 而没有共享同质集团，更没有共享血统的意识。因此，像法国、美利坚合众国等西欧各国一样 具有这种民族观念的人和东亚的民族观念、还有类似的种族民族观念非常强烈的集团经常说到东欧的各种nation，在区分东欧的民族观念的同时 双方的差异导致了不同的政治事件和政治体系上的差异。

还有一位学者强调了这一点。汉斯·科恩是民族主义研究中有名的学者 他的著作《The Idea of Nationalism》非常有名。以什么闻名呢？是市民族概念，市民的Nationalism，还有种族民族概念，种族的Nationalism，他把这两者看成是相互对比的概念。在西欧的市民Nationalism中，可以发展出自由主义的那种政治体系 与此相反，因东欧的种族的Nationalism而最终发展成了纳粹主义那种整体主义的政治体系。他曾以这种方式展开过讨论，就是从Nationalism的两种形态开始形成了不同政治形态的分化。那是20世纪40年代出版的书,之后被很多人阅读了。很多人真的认为东欧为什么会出现整体主义？他们的民族观念本身就具有很强的种族性。有些人可能将其应用到东亚。韩国为什么具有那么强烈的整体主义、权威主义性质。为什么对外国人那么排外？也可以说是因为种族的民族主义观念。而且实际上也能看到那样说的人。

但是，但是最近学界出现了很多自我反省论，从二分法上区分两种nation观念 学者们说需要克服从二分法上区分两种nation观念。这不只是在韩国,而是在全世界 研究民族、nation的学者之间正在出现这种自省论。为什么呢？是因为那些相信以共享政治理念和市民理念为基础 而诞生的民族，还有这样的nation，如果看孩子们看的课本的话，就会追究从过去流传下来的历史渊源，并说出自己的祖先是誰。

而且以此为基础，强调同质性的 特别是在19世纪近代国家形成的过程中进行了那些教育。

我弟弟在法国生活,他儿子正在是小学低年级，有一天，从学校回来聊天,我弟弟听他儿子说话，吓了一跳。因为他说自己的祖先是加利亚人，韩国孩子怎么会说这样的话呢？我弟弟吓了一跳。就这样，如果那些国家也追溯过去的话，也会对“我们的祖先到底是谁呢？”等类似这样的问题进行探索。相反，那些相信共享血统的人，那不是真的共享血统吗？只不过是一个神话而已。因此，在真正的意义上 从原始主义的观点出发，想象民族是极其有限的。

相信以共享文化为基础形成一个nation, 其实所有的nation, 西欧的nation也是以文化为基础确实形成了共同的同质性。理念也不是文化嘛。政治文化也是一种文化。不是吗? 就是用那种二分法一方是共享政治理念的人, 另一方是相信共享血统或文化的人。以这种方式将两种nation、identity的形态分为二分法, 尤其是对相信种族观念强烈的nation历史 投以非常否定的视角是不明智的, 这些在今天被指责。看这个的话, 看两张照片吧。

左边是什么? 是我们的红魔。这是韩国在世界杯上展开比赛时, 在市政府前广场上身穿红色的衣服, 举着太极旗出来为韩国队加油的样子。右边是什么? 右边就是法国队在世界杯上踢球时人们举着三色旗为法国队加油的样子。但是吧, 这两张照片显示的是同一现象还是不同的现象? 我们2006年世界杯的时候不是有著名的网球选手鲍里斯·巴克吗? 鲍里斯·巴克在电视上为德国国家队加油, 并说:“看到这份热情, 爱国主义真是值得提倡的。所以爱国主义和民族主义是不同的”。我非常同意他说的话, 是好话。不过, 人们对爱国主义, 就像我在下面写的一样 Patriotism generally has a positive connotation. 与爱国主义具有非常积极的含义相比 我们却对民族主义Nationalism generally has a negative connotation, 具有负面含义。那么, 韩国的那些助威文化是Nationalism, 这里法国的助威文化是Patriotism吗? 真的可以那么看吗? 从这方面来看, 其实爱国主义也是非常强烈的某种nation的同质性 然后从以认同感、连带感为基础的这一点来看 我们还需要仔细分析这两者之间的差异那么大 而且我们还应该仔细观察一下如果它们与某种历史性、社会性的现象相结合, 会带来怎样的结果 我们如何看待东亚民族观念 还有展望这些问题未来如何发展等 我们会在这个讲座的最后一周关于这些问题进行讨论 所以今天提起这样的问题为止吧。

那么, 在今天的第一堂课上, 我们稍微整理一下讨论了什么, 然后结束吧。首先citizenship这个用语有很多不同的含义 还指出翻译上有问题。所以我跟大家说将citizenship翻译成市民权, 还有citizen与其翻译成市民,不如翻译成国民。其次, 国籍, nationality和市民权citizenship在人员范围上有一致的时候, 也有不一致的时候。还看了一下有哪些不一致的情况。过去在一个国家也不能享受完全的权利的人, 他们算是没有市民权。不过, 我们还指出从属该国主权这一点来看,虽然拥有国籍, 但没有市民权,这样有不一致的情况。

然后我们看了nation的各种意义和翻译的问题, 剩下的nation将直接标记为nation。

还有根据需要, 有时要把它翻译成民族或国民。我们还了解了看待nation的3种观点,原始主义、近代主义、种族性、象征性的接近。我们了解了这三种观点, 并简单地介绍了东亚的nation观念所具有的特征。

还有西欧的nation观念和东欧的nation观念或者 东亚的nation观念是否应该分别以市民性、政治性nation观念 或种族性、血统性的nation观念进行二分法区分, 这些都有各自的特点, 我们也可以谈论这些特点, 这种二分法从另一个角度来看,可能会应用到对某个特定国家的历史 或文化产生偏见。因此, 我介绍了最近想要克服 这种二分法的学界动向。我以后在克服二分法的 那种基础上要进行本讲座, 今天就这么结束这节课吧。

# 기타학습요소



### <퀴즈>

1. 다음 중 citizenship의 한국어 번역어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공민권(公民權)
  - ② 시민권(市民權)
  - ③ 민족성원권(民族成員權)
  - ④ 국적(國籍)
  - ⑤ 시민성(市民性)
2. Nation은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각각의 의미에 부합하는 한국어 번역어가 있습니다. 다음 중 nation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nation을 한국어 문헌에서 한국어로 표기하는 데 적합치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국민
  - ② 국가
  - ③ 민족
  - ④ 부족
  - ⑤ 네이션
3. Ethnic group을 표현하는 한국어 번역어로 학문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 ① 종족(種族)
  - ② 인종(人種)
  - ③ 무리
  - ④ 공동체(共同體)
  - ⑤ 인간집단

### <퀴즈>

4.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언이 있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refugee”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위의 문장에서 nationality가 세 번 나오는데, 그 중 두 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두 개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두 개가 어떤 것입니까?

5. 민족주의의 영어 번역어는 무엇입니까?

### <참고도서>

- 다음의 참고도서를 읽어보세요.(314쪽)  
헤르만 R. 판 흰스테런.(2020). 시민권의 이론. 그린비. 314쪽